



CARITAS WONJU

2010년 봄·여름 <제20호>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NONPROFIT
US POSTAGE
PAID
MERRIFIELD, VA
PERMIT 489



원주카리타스
아이토크비비
자매결연 ▶10면

6 아이티를 도웁시다



7 사랑의 모금통 설치업체를 찾아



9 라인댄스 초급반 개강합니다



13 뼈아파스 어린이 집 완성



18 산타가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 571-432-9868 / 703-968-3010

이메일 : caritasus@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caritaswonjuva.com>

글 쓰는 순서

	글 쓰는 순서	
2	고국에서 온 편지 카리타스 란	최기식 신부
3	이사장 글	곽호인 신부
4	후원회장 글 정기이사회	유홍열 회장 유자경
5	편집인 데스크	정영희
6	아이티를 도움시다	신선애 비비안나
7	사랑의 모금통 업소를 찾아서	차명자, 신선애 비비안나
8	라인댄스 강습 라인댄스를 배우고 나서	김숙희
9	라인댄스 광고	
10	아이토크비비 자매결연	
11	아이토크비비 광고	
12	나누는 마음은 항상 행복합니다	한린다 안젤라
13	빠아따스 어린이 집이 완공되었습니다	김정임 수녀
14	불우이웃돕기 골프대회	천일교 기자
15	김스오토 나는 행복합니다	김 데레사
16	산타 - 빠아따스/네팔	김정임 수녀, 김지나
17	산타 - 천사들의 집	
18	산타 - 황성, 원주	
19	최기식 신부님 방문 생활영어 - 부역의 진실 게임	정영희 기자
20	나에게 영감을 준 세 여인	홍사원
21	녹음도서 소개	
22	원주후원회 소식	권순해, 박은영
23	원주후원회 소식	김금진, 박예람
24	고국 아동후원	
25	필리핀 빠아따스 아동소개	
26	후원회비	
27	후원회비	
28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29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30	광고	
31	광고	
32	평화방송 광고	

기쁨과 희망을 나누어주는 회원님들께

최기식 베네딕토 신부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후원회장, 천사들의 집 원장>



‘나는 그 곳에서 너를 축복하고 네 이름을 떨치게 하며

이웃에게 복을 주는 이름이 되게 하리라.’ (창세12, 2)

오랫만에 방문한 워싱턴 원주 카리타스,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또 넘치는 환대와 선물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사장 신부님, 유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님들과 봉사자님들!

각별한 사랑으로 크신 정성을 전해주시신 모든 회원님들!

거듭거듭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고마우신 임원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투쟁’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옳은 말이지요. 많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과 집단에 이익이 되는, 그 어떤 무엇을 얻고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며 삽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여러 임원 봉사자님들도 이겨내기 힘든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눔의 공동체를 위한, 참사랑의 마음, 그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 자

신과의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사람의 상근 직원도 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만나고 의논하고 행사를 계획하고 홍보하고 추진하고 - 어려운 일을 한 마음으로 한결 같이 해 오시는 그 자체가 숨어있는 희망과 기쁨의 빛이었고 큰 감동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근간에 있었던 아이티나 중국 지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천안함 침몰사건, 이곳 저곳 두렵고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돕고 나누어야 하는 사랑의 절대성을 일깨워주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작은 세포 안에 우주의 생명의 신비가 들어 있다고 하듯, 비록 작다고 해도 원주 카리타스 안에는 인류 전체의 기쁨과 희망이 들어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뜻을 인내와 끈기로 키워 가십시오. 마음 안에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힘든 일이나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고, 우리민족의 자라이며 인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원주 카리타스 여러 회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안에 항상 기쁨과 보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주에서 최기식 신부 드림



카리타스(Caritas)란?

라틴어로 ‘카리타스(Caritas)’라고 쓰며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카리타스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말하기도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구나 단체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와 전세계 198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4개 카리타스는 상호협력함으로써, 특히 제 3세계 국가의 구호 및 복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 놓은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후원자 여러분들께서 생활속에 실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큰 사랑을 이웃에게 듬뿍 나누어 주고 계시니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게 실천되지 않는 이웃 사랑,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시작하고 가꾸어가는 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 받고 싶어 하고 귀히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리저리 따져 보고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은 아닌지, 이 정도 베풀면 되는지 열심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지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사랑을 크게 키워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가장 큰 적수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에서 부터,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내 가족, 내 이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님이, 내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내 이웃이 짊어지고 있

는 괴로움은 무엇인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봅시다. 그리고 더 넓게는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나의 관심이 만들어진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의미로 전달될 지,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루 5분, 10분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관심’이 바로 서로에게 전해지는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웬지 내 급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이름은 한 칸에 밀려나 우리가 다시 돌아봐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모든 후원자님들은 바로 이런 곳에 관심의 눈길을 주셨고, 작은 실천의 첫 발을 내딛어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키워주고 계십니다. 그 용기있는 발걸음과 따뜻한 시선에 감사드리며 한결 같은 사랑의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작은 관심’을 시작으로 나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지 마음 먹게 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 그늘진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기쁨으로 가득 찰 얼굴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세요, 그 기쁨은 곧 여러분 자신의 기쁨이 되어 두 배, 세 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곽호인 베드로 신부

〈원주카리타스 이사장·성 정바오로 천주교회 주임신부〉

회원 기도문

모든 이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께 봉헌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 대한 굳은 신뢰와 사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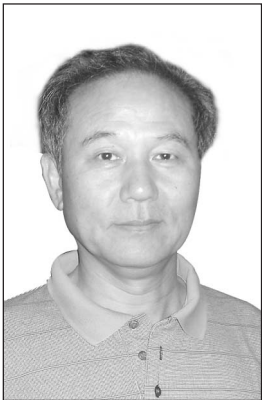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려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사랑 닮기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생과 기도로
주님 모상이 우리와 이웃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두 손 모아 간절히 청하오니
교회로 하여금 세상 안에
주님 뜻을 식별하여
죄와 온갖 고통 속에
간여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사랑의
성사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모든 이를 돌보는
성직자, 수도자와 봉사하는
모든 이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당신 모습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원주 카리타스에 함께 하시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사랑의 작은 불꽃 모임이 되어
주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도구되게 도와주소서.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과 하나되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유홍열

〈원주 카리타스 후원회장〉

계절이 또 바뀌어 봄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그 많던 눈도 곧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겠지요. 저희 후원회도 봄을 맞아 회지 봄/여름호를 발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갔을때 피해야 할 화제로 종교, 정치, 금전, 성별등을 들지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의 시작을 안전하지만 진부한 계절과

날씨로 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이 화제들이 논란의 여지가 많고 개인적인 차이가 논쟁으로 번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일상적 만남에서 우리들의 대화는 항상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천안함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작년에는 대통령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주제에 지식도 없고 관심도 많지 않은데다 더우기 이 곳 회지에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회지를 내 보낼때가 되면 이 지면에 무엇을 써야하는가가 제일 큰 고민중의 하나인데 첫째로 마땅한 주제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글이 소설이든지 수필이든지 우선은 글 쓰는 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때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이 없을때 그저 쓰여지는 글이 별 다른 의미도 감동도 없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

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지난 두 번의 회지에 모두 말씀 드리고 이제 남은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후원회는 회지를 발행하고, 원주 여러 시설들에서 보내온 글들을 신문에 싣고, 또 저희 행사들을 신문이나 방송 미디어를 통해 알리려 노력합니다. 후원회가 이렇게 홍보하려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생각났습니다.

홍보물이 나가고 나면 많지는 않아도 후원회로 문의 전화가 옵니다. 지난번에는 ‘살레시오의 집’에서 식구들과 봄이면 산나물을 캐러 간다는 이야기가 실린 원고를 보내와 신문에 보내 인쇄되었는데, 이 기사가 나간 후 함께 산나물 캐러 가서 돕겠다는 봉사자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사마다 시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해 일어난 웃지 못할 사건이었지만, 여러 분이 후원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또한 후원회지가 나가고 나면 많지는 않아도

회지에 인쇄된 회원 가입 용지를 이용하여 새 회원으로 가입하는 편지가 옵니다. 다른 홍보물과 마찬가지로 후원회가 회지를 발행하는 이유는 후원회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해서 더 많은 후원금을 모으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의 조그만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지를 받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원주 카리타스 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회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후원금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시면 합니다. 이번 회지를 받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가입용지를 잘라내어 이름과 주소를 쓰시고 후원회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회지로 한 분, 한 분 새 회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에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리타스 정기 이사회

유자경 〈카리타스 운영이사편집인〉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은 지난 5월 5일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회의실에서 제7차 법인운영 이사회를 가졌다. 이사장 박호인 주임신부님의 기도와 인사로 시작된 이사회는 유홍열 회장의 진행으로 2009년도 사업보고 및 활동평가, 재무보고, 2010년도 사업계획등을 논의, 결정하였다.

2009년도에는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이 지난해의 24만여 달러에 비해 7만불 정도 증가한 31만여 달러에 달했다. 이에 대하여 박호인 이사장은 “지난해 경기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카리타스 후원금이 증가했다”며 “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회원들과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유홍열 회장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50여개의 참가 업소에서 한푼 두푼 모아주신

‘사랑의 모금통’에서 모금된 액수가 8,700여 달러에 달한다”며 “참가해 주신 업소에 감사사를 표한다”고 하였다.

모금한 후원금 전액은 원주 천사들의 집, 모니카의 집, 살레시오의 집,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등 장애인과 불우 청소년을 위한 고국의 52개 시설과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파푸아 뉴기니등 해외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지난 연말 두 번째 실시한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좋은 호응을 얻어 많은 어린이에게 기쁨을 준 뜻깊은 행사였으나 행사 기간이 짧아 진행에 많은 고충을 겪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올해에는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아동들로부터 편지를 받도록 6월 중 해외시설에 연락하기로 결정하였다. 산타, 후원금을 보낸 모든 복지관으로부터 이 행사가 아동들에게 꿈과 용기를 준 행사였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후원회원 및 사랑의 모금통 보급 확산, 지구촌 아동돕기 골프대회 개최, 라인댄스 강습, 미용행사,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 후원 회지 발간, 녹음도서 보급 등이 논의되었다.

이사회는 또한 재정기금과 후원회비의 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계좌의 분리 등 어카운팅(accounting)의 정비, 현 이사수의 증기를 반영한 이사회 정관 개정, 활동 활성화 위한 분야별 담당 이사의 재조정 및 재정이사의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정기 이사회를 반드시 매년 1월이나 2월 중에 개최하기로, 그리고 1년 중에 이사회를 한번 더 열어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1년동안 협조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패 증정 등을 통하여 감사를 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자 선정을 이사회의 정규 안건으로 올려 토의를 거쳐 결정, 행사와 연결하여 기자회견을 하며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불황을 이겨낸 이웃사랑에 힘입어 ‘아름다운 세상만들기’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하며 이사회를 끝냈다.



정영희 기자

(카리타스 편집인
워싱턴 한국일보 편집국 부장)



최근 우연히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울지 마, 톤즈’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 번 울었다.

지난 4월 한국의 한 방송사가 제작한 스페셜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 봉사 및 교육에 매진하다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의 불꽃같은 삶을 담았다. 지난 1월 4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과 작별한 이태석 신부. 의학을 공부한 의사로 또 가톨릭 신학대를 졸업한 성직자로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며, 짧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 했던 그의 삶은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선다.

절망과 고통의 땅에 희망을 심다

1962년 부산에서 10남매 중 아홉째로 태어난 이태석 신부는 1987년 인제대 의대 졸업 후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보장받는 의사직을 접고 살레시오회에 입회, 광주 가톨릭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2001년 사제 서품 후 종교와 부족 갈등으로 싸움이 그칠 날 없는 수단 남부지역의 톤즈(TONJ)에 정착, 의료봉사와 교육에 헌신했다.

수단은 20년째 이어진 내전으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피폐하고 빈곤한 국가. 북쪽의 이슬람 세력과 남쪽 원주민의 충돌로 시작된 전쟁은 지금까지 2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한번에 30만명 이상이 희생된 인류 최대의 비극 다르푸르 사태도 2003년 그 곳에서 일어났다. 내전은 기아에 허덕이며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고 어린이들의 희망조차 앗아버린 절망의 땅이 됐다.

마을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를 이 신부의 세례명인 요한(John)에 성 ‘이(Lee)’를 붙여 ‘줄리 신부’라 불렀다.

이 신부는 40~50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손수 벽돌을 짚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주민들과 함께 병원을 짓고 한센병과 말라리아, 결핵 등 질병으로 고통 받는 빈민들을 보살폈다. 특히 한센병 환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직접 신발을 만들어주며 아침저녁으로 보살폈다.

그는 또 학교와 기숙사를 세워 가난한 어린

이들의 자립을 도왔다. 청소년들을 위해 농구대를 만들어 주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교실을 지어 직접 수학을 가르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내전에 찌든 아이들을 위해 브라스 밴드를 조직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악기를 조달하고 스스로 연주법을 공부해 아이들을 지휘하고 가르쳤다. 브라스 밴드는 마을의 희망이 됐다. 아이들은 종과 칼을 녹여 악기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이태석 신부에게 배운 연주법을 후배들에게도 가르쳤다. 작은 희망의 시작이었다.

이 신부는 “처음에는 이 곳에서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서야 함께 해 주는 것이 최고라는 걸 알았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태석 신부, 아프리카 오지서 교육·의료 봉사

예기치 못한 말기암 판정으로 지난 1월 선종

예기치 못한 지상에서의 작별

이 신부는 2008년 휴가차 찾은 한국에서 말기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힘겨운 투병 중에도 그는 “톤즈로 돌아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톤즈에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열 여섯 번의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이 신부는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 1월 14일 선종했다.

이 신부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톤즈의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전해 듣고 모두 함께 울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어린 학생들이 그를 떠나보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서럽게 울었다.

그곳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가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자신들에게 해주었다며 슬퍼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일흔 노사제는 자신을 데려가고 대신 할 일 많은 이 신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다며 울먹였다.

한센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노인이 손가락이 없어 뭉뚱한 손으로 방송취재진이 건네 준 이 신부의 사진 속 얼굴을 어루만지며 입맞춘 후 그를 위해 경건히 기도하는 장면, 밴드부 막내인 13세 소년 산토 브린지가 이

신부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는 모습은 보는 사람도 눈물을 억제할 수 없게 했다.

온전히 함께 하는 삶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성경구절을 좋아했다는 이 신부.

이 신부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봉사 및 교육 활동을 할 당시 직접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에게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새벽 5시 45분 일어나 미사를 드리고, 오전 중에 200~250명 정도 진료를 합니다. 낮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몸에 무리가 오고, 당장 말라리아에 걸리거든요. 수요일에는 이동진

사랑과 나눔 정신이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진정한 사랑,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그의 짧은 삶이, 강렬한 여운으로 가슴에 두고두고 남는다. 그가 남긴 흔적은 희망, 절망이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이다.

단 한번도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삶 속에 흘렀던 진정한 사랑과 나눔 정신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변화를 줄 것으로 믿는다. ‘열정적인 삶과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그가 그토록 깊은 애정을 쏟았던 톤즈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할 것이다.

그의 삶을 보면서 이기심 버리기와 욕망의 내려 놓음, 용서, 화해, 진실, 소망, 공동선(共同善) 등을 떠올린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이태석 신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이 더욱 더 애잔하게 다가온다. 그가 남기고 간 사랑 안에서 우리도 매일 작은 희망과 만나기를 바란다.

www.youtube.com으로 들어가셔서 ‘이태석신부’를 치시면 KBS 스페셜 100411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즈의 동영상도 보실수 있습니다.



료를 나갑니다. 톤즈에는 진료소가 ‘국경없는 의사회’가 하는 곳과 이곳 두 군데 뿐이거든요. 거리상으로는 몇km 안되는 가까운 이웃마을이라도, 도로가 없고 길이 험해서 꽤 오래 걸려요.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충동적이라 그들에게 신부나 수녀는 안중에 없지요. 삶은 소리를 하면 금방 변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배움을 통해 서서히 변화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매일 희망을 만납니다. 조금의 약과 주사로 뼈가 앙상한 아이의 불과 엉덩이에 살이 오르고, 죽어 가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흔적, ‘희망’

그가 수단에 남긴 유품은 외로움을 달래 준 악기 하나, 엉덩이 부분이 닳아서 색이 바랜 바지와 웃옷 몇 가지, 후원자가 보내준 10달러 지폐 두 장, 그리고 톤즈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묵주 한봉지가 전부였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는 이태석 신부. 아프리카 오지 절망의 땅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 젊음을 바친 그의 고귀한

“아이티를 도웁시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신선애 비비안나

〈카리타스 편집인〉

지난 1월 발생한 지진으로 사상 최대의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티를 방문해 따뜻한 의료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베델교회 사역팀의 WKTV 방송녹화가 있는 날, 그 현장을 찾았다. 대기실에는 이번 아이티 의료봉사를 다녀온 박재분 약사, 박동희 소아과 의사, 그리고 이번 의료 구호팀과 합류는 못했지만 이들보다 먼저 IMR (international Medical Release) 소속으로 아이티 의료봉사를 다녀온 데니 김 치과의사도 자리를 함께 하여 자신들이 느끼고 보고 돌아온 아이티 현장 소식을 생생히 전해 주었다.

8박9일 일정으로 이번에 아이티를 다녀온 베델교회 사역팀은 아이티 구호팀중 의료사역을 맡아 하고 있는 팀으로 내과, 소아과, 방사선과,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7명의 전문의사와 1명의 약사, 그리고 학생으로 구성된 4명의 헬퍼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재분 약사는 아이티를 다녀온 베델교회 사역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며 특히 먼저 아이티를 방문한 데니 김 치과의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한다.

아이티 현장은 규모 7.0의 강진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고, 인구의 1/3에 이르는 이재민 발생 등 여전히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고 있다. 폐허가 된 마을, 부모와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 밥도 없고,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일일이 열거조차 하기 힘든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날도 있었다며 “밀려드는 환자를 치료하느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아이티 주민들과의 대화도 치료에 꼭 필요한 것이었을 텐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해줄 수 없어서 가장 아쉬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동희 의사는 돌봐야

해 병원을 찾기 보다는 식량으로 준비해 간 분유를 먹기 위해 병원에 와 진료를 받는 모습을 보고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하

는 박동희 의사와 박재분 약사의 얼굴에서, 돌아온 지금도 아이티 주민을 생각하는 사랑이 보였다.

그는 미리 준비해간 돈보

놓고 그곳에서 기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라며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MR 소속으로 이들보다 먼저 아이티를 다녀온 데니 김 치과의는 강진에 휩싸여 국가 기능이 마비되어 아이티로 들어가는 길조차 막힌 상황에서도 오로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아이티 의료봉사에 나섰다.

데니 김 의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낯 모르는 사람들과 마음과 뜻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얘기, 육로로 가는 도중 타이어 펑크로 힘들었던 얘기 등 생각보다 더 참혹하고 어려웠던 현장상황을 설명해 줬다.

현재 아이티는 국제사회 곳곳에서 보내온 따뜻한 손길로 긴급구호 및 재건 사업이 한창이긴 하지만 처참하게 망가져 버린 아이티 주민들의 삶을 치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중남미 최빈국인 아이티는 좀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제부터가 아이티를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베델교회 사역팀은 오는 6월 아이티 구호팀의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 살아 남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티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 왔다는 박재분 약사는 아이티 참사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는 듯해 아쉽다며 사실 지금부터가 아이티를 도와줘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박동희 소아과 의사는 무려 하루에 330명의 환자를 진료한

할 환자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아이티 국민들은 약보다 먹을 것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50파운드짜리 백을 무려 49개나 들고 갔지만 막상 가서 보니 약보다 음식(먹을거리)이 아이티 주민들에게는 더 절실했다고 전한다. “아이티 주민들이 치료받기 위

등 생필품 보따리를 풀었을 때 기뻐하던 아이티 주민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아이티 지역의 기후 특성상 곧 다가올 우기에 대비한 주거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말한다. “집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나뭇가지 위에 시트를 걸쳐 텐트를 만들어

사랑의 모금통 설치 업소를 찾아서

차명자 <카리타스 운영/재정 이사>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사랑의 모금통’이 비치되어 있는 알링턴의 두 업소를 방문했다. 델리 샵을 찾을 때에는 가게가 가장 바쁜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찌나 시간이 나는 때를 이용하여 방문하다 보니 본 의 아니게 바쁜 영업시간에 업소들을 찾게 되었다.

첫 번 방문한 Convenience Express (2450 Crystal Dr., Arlington, VA 22022)는 상당히 크고 바빠, 주인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사진을 찍은 후 급히 나왔다.

두 번째 방문한 Jon's Café (1800 North Kent St., Arlington)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조금 여유가 있는 듯했다. 또한 점심 때라 배도 고팠고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시간을 벌기로 했다.

점심을 주문하고 돈을 지불 한 다음 원주카리타스에서 나왔으니 회지를 위해 사진을 몇 장 찍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양해를 구했다. 주인 아주머님이 반색을 하시면서 왜 점심값을 지불했느냐고 하시며 음료수와 과일을 갖다 주신다.

항상 업소를 방문할 때 느끼는 어색함이 반가이 맞이해 주시는 사장님의 친절로 금방 사라졌다. 업소의 사진을 찍는 것은 허락하셨으나 본인들이 찍하시는 것은 굉장히 계면 찍어 하겠지만, 우리는 질세라 주인님 사진도 같이 포함돼야 한다고 밀어부치며 몇장 찍었다.

공교롭게도 바쁜 점심시간에 방문하여 미안한 감도 있었지만 영업을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기분 좋았다. 원주카리타스 모금통 식구들이 열심히 사시는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이고 자랑스러웠다.

그동안 열심히 도와주시다가 요즘 관심이 뜸한 업소 여러 분께 이 지면을 통해 부탁드리고 싶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 모금통에 모아진다 해도 꾸준히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진정한 ‘티끌모아 태산’을 이룰 수 있다고...



Convenience Express



Georgetown Valet

2031 Florida Ave, NW Washington, DC 20009



Jons Cafe

항상 새로움이 있어 즐거운 곳 Jon's Cafe

신선애 비비안나 <카리타스 편집인>

한 폰, 두 폰 모금통이 채워질 때 마다 사람들의 훈훈한 사랑도 채워지는 듯해 늘 기쁘고 행복하다는 Jon's Café 최용태 마르티노 사장은 원주 카리타스와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한다.

“Jon's Café에는 팁(tip)을 넣는 팀통이 없습니다.” 최 사장은 팀통 대신 그 자리에 항상 모금통을 놓고 있다. Jon's Café를 찾는 손님들의 큰 호응으로 이들과 함께 이웃과의 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최사장은 말한다. “근데 도움이 되나요?”라고 겸손함으로 반문하는 최 사장은 원주카리타스와 인연을 맺기 전에는 나이트 오브 콜롬버스를 위한 모금에도 오랜 기간 참여한 적이 있었다. 또한 최 사장은 가족처럼 함께 일하는 6명의 직원들도 뜻을 함께 하여주어 기쁘다며 그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Jon's Café에는 늘 새로움이 있어 즐거운 곳이다. Jon's Café는 40가지가 넘는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시간대별로 메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요일별로도 색다른 메뉴를 스페셜로 3가지씩 선보이고 있어 손님들이 기호에 따라 시간별, 요일별로 메뉴를 체크하여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아침에는 오믈렛과 고기, 감자. 달걀 등의 모듬요리 플래터(platter)가 가장 인기 있으며, 낮에는 요일 별로 준비

하는 스페셜 3가지, 고기 종류의 메인디쉬에 야채요리 2가지를 곁들인 메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최 사장은 언저시 Jon's의 운영 노하우를 알려준다. 특히 고기 대신 생선 요리가 메인디쉬로 나오는 금요일에는 좀 더 많은 고객들이 Jon's의 맛을 찾아 온다. 물론 Jon's Café에 오면 어느 델리 샵에서나 즐길 수 있는 에그 샌드위치, 치킨스테이크치즈 샌드위치 등도 즐길 수 있다.

알링턴과 워싱턴에서 20년의 델리 샵 경력을 갖고 있는 최 사장 부부는 음식 하나하나에,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함에서도 노하우가 묻어 났다. “평균 하루에 350명에서 400명의 손님을 맞습니다.” 문턱이 닳을 정도로 오고 가는 이들이 많아 지칠 때도 있지만 피곤함 보다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님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한다고 말하는 최 사장은 대부분 단골손님들 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고객 한 명 한 명의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6명이 한마음으로 빠른 서비스, 그리고 보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델리의 경우는 오픈된 주방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에 청결한 위생 상태나 신선한 재료, 신속한 몸놀림 등도 음식의 맛을, 그리고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항상 철저한 관리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사장의 또 하나의 비법이다.

주소: 1800 North Kent St., Arlington, VA 22209

전화 (703)470-6337

불우이웃돕기 위한 라인댄스 강습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부)이 지난해에 이어 한국의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 라인댄스 강습을 지난 1월 16일부터 성 정바오로 성당 친교실에서 8주간 실시했다.

또한 제 10차 라인댄스 강습이 5월15일부터 8주간 진행

될 예정이다.

강사는 이 성당의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한 홍 세실리아 씨. 수강료 전액과 후원금은 강원도 지역 독거노인의 난방비와 조손(祖孫) 빈곤 가정 어린이들의 급식비 지원으로 쓰여진다. 카리타스는 지난해에도 라인댄스 강습과

라인댄스 DVD판매를 통하여 1만1천여 달러의 후원금을 조성해 한국에 보냈다. 라인댄스 강습, 라인댄스 DVD구입 및 한국의 독거노인과 조손 아동 후원에 관한 문의는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전화 (571)432-9868로 하면 된다. <편집인>



라인댄스를 배우고 나서

김숙희 <카리타스 후원회원/라인댄스 수강생>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사람들이 줄을 맞추어 라인댄스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언젠가 나도 라인댄스를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성당에 다니는 언니가 권유하는데도 뭐가 그리 바쁜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드디어 마음을 먹고 8주 코스에 등록을 했다.

2년 전 유방암 수술로 임파선까지 제거하여 몸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해야 한다

는 의사의 권유도 있었다. 일단 나가보니 한국 유행가에도 맞추어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었다. 특히 초보자를 위해 시작하기 30분전에 스텝을 연습시켜 주어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점점 자신이 생겼다.

강사님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 기다리기가 아쉬워 내친 김에 수강생 몇몇이 집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연습도 하고 이

야기 보파리도 풀어내고 하하 호호 재미있게 연습하는 모습에 남편도 즐거워 하였다. 그렇게 땀을 한바탕 흘리고나면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 버렸다.

정말 나이에 구별없이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이나, 스트레스 풀고 싶으신 분, 운동이 필요하신 분께 적극 권하고 싶다.

더구나 수강료 전액이 독거 어르신 난방지원과 결식아동을 위해 보내진다니 우리는 좋은 일도 하면서 재미있는 춤도 배우니 더욱 뿌듯해진다. 특히 아무 보수 없이 한결같이 수고하시는 강사님과 어려운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돕고자 열심히 수강생을 모으는 카리타스 봉사자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도 모두 조금만 힘이 되고 싶다.

활기차고 경쾌한~

라인댄스 초급반 개강

파트너 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라인댄스 초급반을 개강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운동도 하고 강습비 전액은 고국의 독거어르신 난방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으로 보내드립니다.

◆개강일시: 2010년 7월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성 정바로로 천주교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강 사: 홍세실리아 (다년간 미국단체에서 가르치심,
카리타스 라인댄스강습 및 영상교재 DVD출반)

◆수 강 료: \$80 (8주 코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복 장: 평상복 ◆신발: 가죽바닥이면 좋음

◆신청문의: 571-432-9868

라인댄스의 효과

- * 파트너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
- * 비만탈출, 아름다운 몸매 유지
- * 재미있는 스텝으로 스트레스 해소
- * 골다공증, 관절염 예방 및 기억력향상
- * 다양한 음악으로 리듬감 향상
- * 자신감 넘치는 행복한 삶



주최: ✱ 아름다운세상만들기 원주카리타스복지재단

원주 카리타스, 아이토크비비와 자매결연

지난 3월 31일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부, 회장 유홍열)과 인터넷 국제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인 아이토크비비가 자매결연을 맺고 한국 불우이웃 돕기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결연식에서 곽호인 신부는 “아이토크비비가 사회 환원사업의 파트너로 우리 재단을 선택한 것에 감사한다”며 “이 자매결연이 더 많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카리타스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토크비비측은 앞으로 원주 카리타스의 프로모션 코드 ‘카리타스 1004’를 이용한 신규 가입건수에 대해 10%의 수익금을 카리타스측에 기부하게 된다. 이 회사의 다이앤 김 이사는 “한인 동포 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종교와 인종, 이념을 초월해 한인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원주 카리타스와 뜻을 모으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수익금 환원 외에도 자체 미디어 광고나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카리타스 재단을 알리고 카리타스에서 제공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소개함으로써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는 카리타스 재단에 무료 인터넷 국제전화 어카운트를 기증했다. 〈편집인〉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소개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는 북미지역 인터넷 음성통신(VoIP)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앞선 기술과 독자적인 VoIP 네트워크를

통해 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버지니아주 타이슨스 코너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이외에도 중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 지사를 둔 글로벌 통신기업입니다. 2008년 5월 워싱턴 지역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첫 선을 보인 아이토크비비는 한인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조인스 아메리카에 의해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으로 선정되면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정용 전화의 새로운 이름이자 기준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토크비비는 ‘보다 나은 통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한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이토크비비 가입을 통한 후원 방법

단지 월 \$24.99에 로컬,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토크비비 글로벌 플랜에 가입하셔서 통신비 절약의 기쁨을 누리시고, 더불어 본국 어려운 이웃 돕기에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어 고객센터(1-800-872-2902)를 통해 아이토크비비에 가입하실 때 상담원에게 ‘Caritas 1004’라고 말해 주십시오. 카리타스 복지재단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로부터 얻어진 수익금 중 일부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적립됩니다.

아이토크비비와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아이토크비비가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 전개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캠페인에 힘을 더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토크비비는 한인 동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단시간 내에 미주 한인사회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 전역은 물론 캐나다 지역으로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고객님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중 종교와 인종, 이념을 초월해 한인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과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간 한인 동포들과 도움이 필요한 본국의 이웃들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활동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특히, 회원들의 후원금 이외에도 문화·체육행사, 사랑의 모금통운동, 후원회지 발행과 각종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투명하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선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 이어서 자매결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토크비비는 현재 미 전역의 다양한 인쇄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으며,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사 광고지면과 고객 통신문 등에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러

운 이웃들의 사연을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인 동포들의 후원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을 통해 아이토크비비에 가입하는 고객들로부터 얻어진 수익금 중 일부를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이토크비비의 이러한 노력으로 한인사회에 기부, 나눔의 문화가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동포들의 사랑이 모여 절망을 희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준경 <iTalkBB 마케팅 부장>

30일 환불보장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놓칠 수 없는 기회!

지금 가입하시면,

-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 개통비(\$29.99) 면제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아이토크글로벌

- 본인의 휴대전화를 아이토크비비 어카운트에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한국 포함 27개국에 국제전화 이용가능
- 인터넷 전용선이나 IP BOX가 없이도 접속번호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 가능
- 아이토크비비 가정용 전화 서비스와 동일한 안정적인 통화 품질

“미국에서 나만의 한국전화번호를 갖는다!”



마이 코리아 넘버

- 복잡한 접속번호 No! 국가번호 No!
-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간편하게 고객님께 전화
- 한국내 요금으로 국제전화에 대한 부담 Zero
- Caller ID를 통해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번호 확인 가능
- 한국의 가족 및 친구를 위한 최고의 선물
- 한국과 교류가 많은 비즈니스맨에게 적합

- 집전화 및 휴대전화로 한국 포함 29개국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화!
- 미국전화번호 및 한국전화번호 무료제공!
- 기존 전화번호, 전화기 이용가능!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제공!

- 폰어댑터 무료대여!
- 간단한 설치 및 이용방법
- 택스 및 추가 수수료 없음.
- 365일 친절한 한국어 고객센터 서비스
- 최상급 회선을 통한 뛰어난 통화품질

* 가입시 상담원에게 'Caritas004' 라고 말해 주십시오. 카리타스 복지재단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로부터 얻어진 수익금 중 일부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적립됩니다.

아 · 이 · 토 · 크 · 비 · 비
iTalkBB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오후 1시 30분(EST)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간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받으신 총금액을 합산해 부과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아이토크비비와 원주카리타스복지재단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작은 꽃들의 집’ 공부방 후원자를 찾습니다.

목포에서도 유일하게 1980년대 풍경이 남아 있는 온각동에 자리잡은 ‘작은 꽃들의 집’. 가난과 가정 해체로 인해
말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극빈자 어린이와 청소년 2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 수녀님들이
운영하며 식사지원과 학습지원 이외에도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여러 상담치료 프로그램과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공부방 역시 무허가 건물인 관계로 정부 지원마저 없어 경제적인
도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린 나이에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전인적이고 자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비영리기관이므로 후원금 전액 세금공제됩니다.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571 432 9868 caritasus@gmail.com

한 린다 안젤라 <카리타스 운영이사>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들고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만발하여 너무 예쁘고 싱그러워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때 생각나는 곳이 물 좋고 경치 좋은 강원도의 원주와 정선입니다.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 불일보다 더 먼저 치기식 신부님이 계신 원주 ‘천사들의 집’ 그리고 신현만 신부님이 계신 정선의 시설들이 많이 궁금해지곤 합니다. 죄송한 맘이지만 봉사는 못 해 드리고 매번 얼굴만 살짝 내밀고 오곤 했습니다.

3년전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이 생길때 시설에 필요한 성물들을 뜻 있는 분들과 함께 동참하여 조금이나마 시설을 후원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적장애인 성인 시설인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과 65세 이상 기초 수급 대상 어르신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시설인 ‘정선군 노인 요양원’을 맡고 계신 신현만 신부님이 안식년을 맞아 미국 내 여러 한

인성당에서 전 신자 피정을 하시는 길에 본당을 방문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장애인들과 어르신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의료기기들이 필요한데 한국에

서의 구입 가격이 너무 비싸 혹시 이곳 가격은 어떠한지 Dr. 조대호님께 문의하셨고, Dr. 조께서 저에게 상의를 해 오셨습니다.

특히 누운 자세로도 체중을 잴 수 있는 전동 침대 체중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노인

을 계산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듣고 정선 시설에 도움이 되는 전동 침대 체중기를 보내기로 다시 한번 마음들이 모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이 의료기가 비싸 모금운동을

부를 너그럽게 봐 주시는 박완다님이 좋은 곳에 쓰라고 거금을 주셨고 모금식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나중에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등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단시일 내에 총 2만6295달러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Dr. 조님의 장모님이 평생 안 쓰고 오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금을 좋은 곳에 쓰라고 보내주셔서 신현만 신부님이 너무 감동하셨고 또 생각지 못한 많은 분들의 후원금이 전해지자 너무 고마워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정선 미사때 마다 시설 직원들과 함께 고마움을 감사기도로 드린답니다. 아직 전동 침대 체중기가 시설에 전달되지 않았지만 서울에 도착했다고 세관에서 신 신부님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감히 몇분의 이름을 이곳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또 한번 주님께서 역사 하시는구나 다시 느꼈고 또 기회가 되어 후원할 수 있으면 주님께 다시 기대어 보겠습니다. 또 좋으신 분들의 후원 동참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하튼 시설에 필요한 기구가 어르신들의 복지와 간호사들의 노고를 덜어주는데 사용될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봄이 와서 제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 것 처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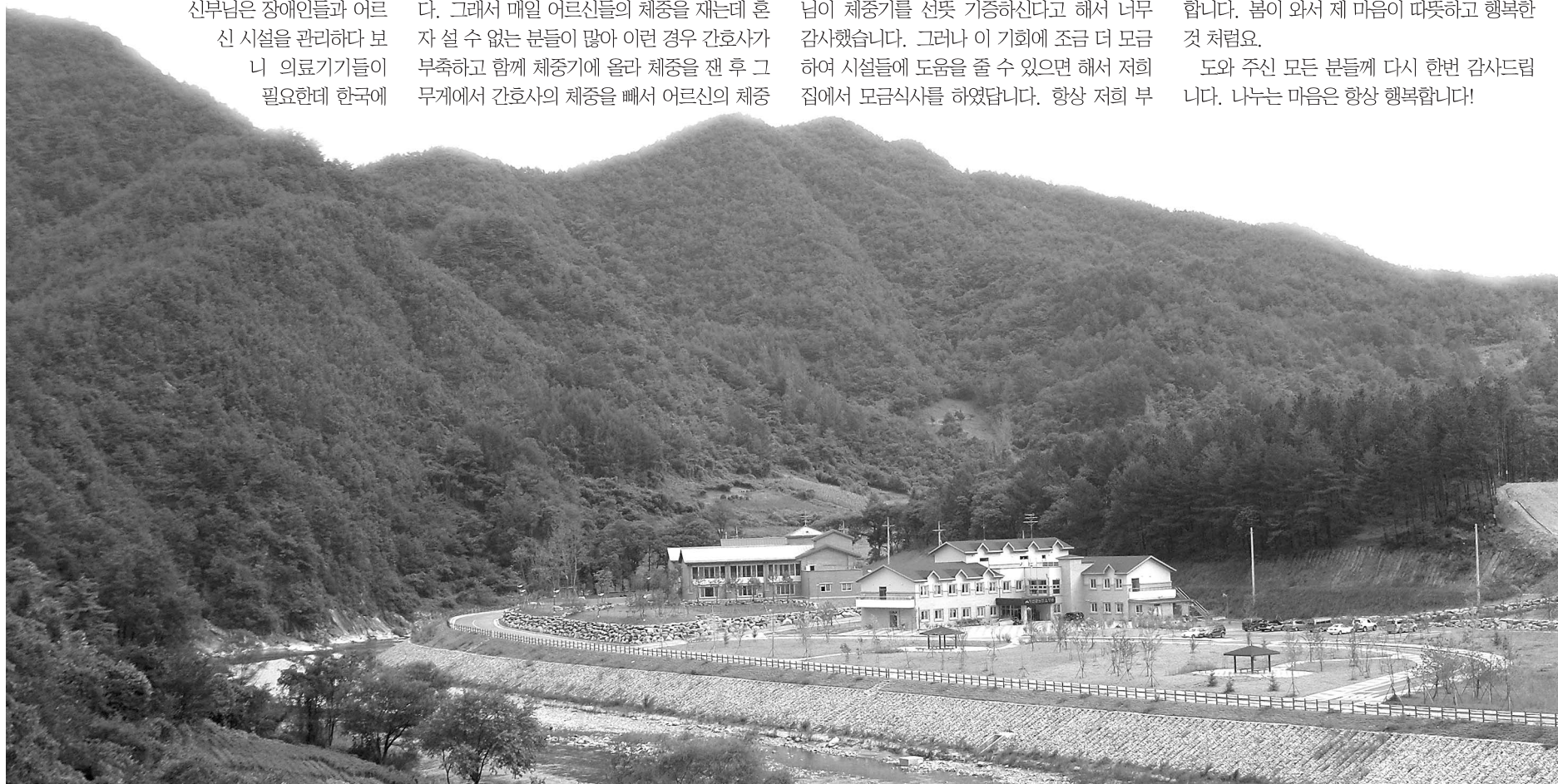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누는 마음은 항상 행복합니다!

나누는 마음은 항상 행복합니다



들의 경우 체중 변화가 건강진단의 척도랍니다. 그래서 매일 어르신들의 체중을 재는데 혼자 설 수 없는 분들이 많아 이런 경우 간호사가 부족하고 함께 체중기에 올라 체중을 잰 후 그 무게에서 간호사의 체중을 빼서 어르신의 체중

하여 구입하려고 했는데 고맙게도 한 테레사님이 체중기를 선뜻 기증하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조금 더 모금하여 시설들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해서 저희 집에서 모금식사를 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부



본 건물과 작은 진료실



1층 식당



축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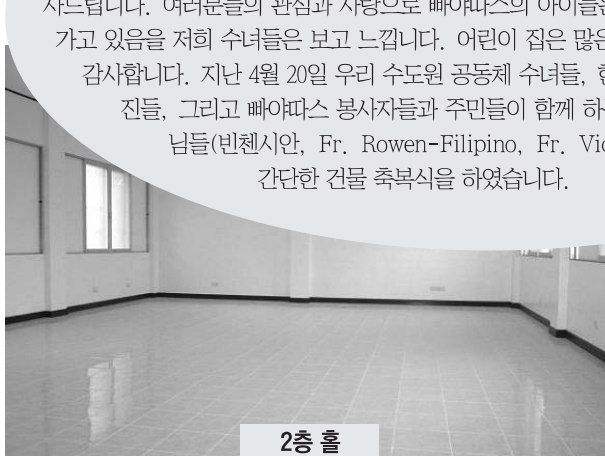
“어린이 집이 완공되었습니다”

저희 빠야파스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원주 카리타스 회원들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빠야파스의 아이들은 가난하지만 웃음을 간직하며 살아 가고 있음을 저희 수녀들은 보고 느낍니다. 어린이 집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0일 우리 수도원 공동체 수녀들, 한국에서 오신 성 가롤로병원 의료진들, 그리고 빠야파스 봉사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빠야파스 본당 신부님들(빈첸시안, Fr. Rowen-Filipino, Fr. Vicent-Korean)의 주례로 간단한 건물 축복식을 하였습니다.

주방 - 외부쪽



2층 홀



저희 예수의 까리파스 수녀회 수녀들은 2001년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2002년부터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빠야파스 라는 곳에 매주 목요일 마다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목욕, 상처 치료, 교

리, 이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25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주는 점심은 고작 밥과 닭요리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매주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닭의 양은 1인당 2 조각(아주 작음).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나눠먹는다. 어떤 아이들은 배가 너무 고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거리에 앉아서 닭 1조각을 조심스레 뜯어 먹는다. 더 많은 양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1주일에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이고 싶는데 몇 몇 은인들이 정성스레 모아 보내준 성금으로 꾸려 가기에는 조금 벅차기에 그곳을 떠날 때마다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돌아간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아이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닌가 싶다.

6월 말부터는 저희 수녀들의 작은 소망이었던 영양 실조에 걸린 25명 정도의 취학 전 아이들에게 매일 점심 한 끼를 주고, 공부도 가르치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어느 정도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이 일을 시작

빠야파스 어린이 집 도와주실 분

주소: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 메모란에 '빠야파스 어린이 집 후원' 이라고 써 주세요)

문의: 571-432-9868

하게 되었다. 방 하나에서 모든 가족들이 살아야 하는 이곳의 형편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공간을 갖는 것을 어쩌면 실현되기 어려운 꿈일 것이다.

그래서 이 집을 이용하여 방과 후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제공해 주고 싶은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는 오직 하느님께 맡길 뿐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은 제외) 운영하게 될 어린이 집, 그리고 목요일에는 250여 명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저희 수녀들은 하느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김정임 가밀라 수녀



아이티 돕기 골프대회 성황 1만 4500불 모금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 (이사장 곽호인 신부, 회장 유흥열)과 성 정바로 천주교회가 지난 4월18일 제4회 '지구촌 불우아동돕기' 골프대회를 공동개최했다.

버지니아 헤이마켓 소재 불런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대회는 아이티 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굶주리고 있는 아동들과 의료혜택이 절실한 피해아동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106명의 골퍼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으며 총 1만4,569달러를 모금 했다. 수익금 전액은 미 가톨릭 구제회(CRS)에 전달돼 아이티 지진 피해 아동을 위해 쓰여진다.

대회 후 시상식에서 성 정바로 성당 곽호인 주임신부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동참해 주신 참가자들에 감사드립니다"며 "참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회는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회장인 김광운 프로와 워싱턴 한인골프협회가 진행을 맡았다. 또 대회를 위해 그랜드마트 등 여러 업체와 기관들이 홀스폰서와 상품 및 물품을 지원했다.

다음은 경기 결과. ▶남성 A조: 1등- 폴 리, 2등-고순석, 3등-이운종, 장려상-정승우, ▶남성B조: 1등-김천만, 2등-김석원, 3등-김지훈, 장려상-홍알벗 ▶시니어조: 1등-장진수, 2등-김관호, 3등-윤영석, 장려상-이진 ▶여성조: 1등-김복희, 2등-김혜경, 3등-김숙이, 장려상-심세실리아 ▶주니어 장려상- 유진 김 ▶장타상-지승찬, ▶근접상-김남식. 천일교 기자 <워싱턴중앙일보>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타이틀 스폰서

강민식대표/그랜드마트(green fee, cart fee 및 신문 전면광고·상품 후원)

홀 스폰서

곽호인 신부, 김명철 스테파노, 김성현 노베르또, 김 실비아, 김정욱·숙희, 김효중 토마스, 김 웰리시아, 리브라더스, 박용걸·완다, 여창구 치과, 오 루시아, 오승은 법률사무소, 워싱턴 Settlement, 윤경자 치과, 이창수 공인회계사, 서울식품, 소재웅 공인회계사, 장원반점, 정 요셉, 조영혜 소아과, 중앙일보, 차명자 치과, 창고식품, 최창식 치과, 최평란, 하주영 치과, 한 회계법인, 한미식품, 한스 여행사, 해태식품, 흥성철/세실리아, Capitol Café/

James Hsu, Kim's Auto, Potomac Financial & Investment 김성환, Yes! Organic Petworth, Young Won Trading

찬조금

곽호인 신부님, 권 순 리오바, 김명철 스테파노, 김미중 안나, 김인찬, 김 주라·김 케티, 박상한·영옥, 박용걸·완다, 박진옥, 성 정 바로 천주교회 구 제대 회원 일동, 소난희, 시티종합보험 김수현, 오 루시아, 요한/베드로/바로로 회, 우연숙, 유영길, 윤제운 요셉, 윤실지, 이수덕 안토니오, 인우골프회, 주미희 세실리아, 한만섭, 홍복성, 흥성철·세실리아, Catherine Langbauer, Eastern Business Machine, G Land Uniform, Jame Hsu, Kim Soo &

Michael, Susan Interior 김순혜, Young O. Park

상품후원

Euromotorcars Benz-MD/유스티노 한 님(홀인원스폰서 - Benz 2 yrs lease), 미건의료기, 바잉투게더, 베스트 장비, 서울하우스, 애난데일 골프, 외갓집, 장 베로니카, 정용철, 한강 Restaurant, Bull Run Golf Club

물품후원

롯데프라자 샌털리점, 아리랑김치/NJ, 워싱턴 그래픽, Beltway Trophy, MS Foods Service/김호연, Ottenberg's Bakery





“나눔의 기쁨, 모두 함께 해요”

“제가 뭐 한일이 있다고 인터뷰까지 해요. 전 그 저 조금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요.”

웨어팩스에서 15년째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

4년째 원주카리타스 골프대회 후원

김스 오토 서비스 김남식 대표

는 김남식 대표는 원주 카리타스가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불우아동돕기 골프대회를 4년째 후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불런 골프 클럽(Bull Run

olf Club)에서 열린 제4회 지구촌 불우아동돕기 골프대회에서는 홀 스폰서와 함께 팀을 구성해 참가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특별히 남을 도와줘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생활하진 않았단다”면서 “그때 그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가진 것을 조금 나눌 뿐”이라고 말했다.

24년전 둘째 형님이 살고 있는 텍사스 휴스턴에 첫 발을 디딘 뒤, 낮에는 자동차 기술을 공부하고 밤에는 형님 식당에서 일을 하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15년째 김스 오토 서비스(Kim's Auto Service, 3707 Picket Rd, Fairfax, VA)를 운영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볼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김 대표는 “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들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섰다”면서 “특히 지금도 어머니께서 동네 사람들에게 잘해 주시던 모습이 선하다”고 회상했다.

앞으로도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힘 닿는 대로 불우이웃 돕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김대표는 봉사의 보람에 대해 소박한 한 마디를 남겼다.

“미국은 기부행위나 봉사가 생활화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거 같아요. 봉사라는게 그렇더라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의 기쁨은 훨씬 더 크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하나 며칠간 고민을 했다. 매년 하던 일인데도 올하는 경기가 안좋아 행사 스폰서가 되어주십사 말씀 드린다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서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웠다. 날씨는 점점 다가오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우아동들을 돕기 위해 올해 역시 선뜻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그랜드마트 /그랜드빌리지의 전폭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좋은 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그래, 용기를 내자! 한 분 한 분 후원자 명단을 만들고 조심스레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행사취지 등을 말씀 드리고 대답을 기다린다. 그 짧은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 지는지... 그런데,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순식간에 나의 긴장된 마음을 풀어 준다.

“어려워도 도와야지요, 좋은 일 하시는건데요”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힘이 나고 더욱 용기를 내어 다음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에도 힘이 실렸다. 그렇게 시작된 구걸(?)이 한 군데 한 군데의 문을 두드리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한 데 모아지니, 스폰서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얼마나 감사하고 벅찬 마음이 들던지...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소소한 음식 재료까지도 다 후원받을 수 있었다. 음식 만들 재료 목록을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후원 받은 재료가 하나하나 모아지니 우리 봉사자들의 마음은 어느

새 창고 가득 좋은 음식들을 쌓아 놓고 반가운 손님 맛을 준비를 끝낸 부자가 된 것만 같았다.

스폰서님들의 고마우신 정성으로 행사는 준비 되어가고 있었고, 이제 골프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한 톨이라도 더 아이티 지진 피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봉사자들은 열심히 참가자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었다.

복지후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마음들이

운 일을 만들 수 있는 힘을 끌어 올리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올해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다. 그리고 특히 행사 때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스폰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다. 참으로 소중한 마음을 주시는 스폰서님들로 인해 늘 힘이 나고 언제나 다시 댈 수 있는 마음으로 재충전된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아이티 아동돕기 골프대회 스폰서를 찾으며

모이는 곳이다.

이 사랑의 힘을 한데 모아, 현장에서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전달하면, 그 힘은 몇 배의 크기로 확대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리라. 작은 정성이 모아진 우리들의 마음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으실것 같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걱정 되고 늘 조바심이 나지만, 하느님의 일은 이 모든 것을 잘 조화시켜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던 당시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잊혀지고 또 다시 새로



김 데레사 <카리타스 홍보담당>



“산타가 되어 투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부)은 2009년 두번째로 ‘산타가 되어주세요’ 기빙트리 캠페인을 벌여 한국·네팔·필리핀·파푸아뉴기니 등 4개국 878명의 아동들에게 성탄선물을 전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불우아동들의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 내용이 적힌 카드를 후원자들이 20불씩 내고 가져가며 결연을 맺는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647명의 후원자가 참여하여 총 1만8720달러가 모금되었다. 878명(한국 264명, 네팔 162명, 필리핀 342명, 파푸아뉴기니 110명)의 아동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936명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액수가 모아서 불황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정을 보여 준 흐뭇한 행사였다. 성탄에 맞춰 보내진 후원금으로 각국의 구호단체 및 시설에서 진행된 산타행사의 사진들과 후원자들에게 보내 온 감사 편지를 소개한다.

(편집인)

빠야따스

원주 카리타스 회원님들께

오늘은 한국의 설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은 발렌타인 데이를 아주 크게 지낸다고 하던데- 지난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 빠야따스 어린이들에게 산타에게 보낸 편지에 적힌 선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거의 4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선물을 저희 수녀 다섯 명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이곳에서 봉사하는 한인 성당 자매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체를 16조로 나누어 한 조에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배당되게 하였습니다. 20달러를 이곳에서 페소(필리핀 돈)로 바꾸니 1인당 900페소씩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돈의 가치는 이곳에서는 실로 큰 액수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모은 쓰레기를 모아서 팔아야 겨우 100페소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9일을 열심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됩니다.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커다란 잔치가 원주 까리따스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인 성당의 자매님들 열 명과 저희 수녀 다섯 명은 각자의 명단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가장 큰 쇼핑물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입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학생인 경우는 학생용 구두, 운동화, 새 원피스, 가방과 문구류 였으며 여자 어린이들은 바비 인형과 원피스, 남자 어린이들은 로봇, 리모트 컨트롤이 있는 자동차, 어떤 아이는 음식만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품질 좋은 것, 유명 브랜드를 구입하여 포장하고, 이름과 번호를 붙이는 등 잔손질이 많았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저희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2, 3층을 오가며 물건을 사느라 저녁 8시가 지났는데도 배고픈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뻐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선물로 가득 찬 차는 수녀들이 탈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신자 자매님에게 차량 봉사를 부탁드렸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각각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이 선물을 보내주신 고마우신 분들과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시간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셨던 한인 성당의 자매님들(물론 저희들도 포함시켰죠),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셨던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한 다음, 미리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던 표를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나와 선물과 바꾸게 했습니다.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의 입이 귀에 걸렸습다. 가진 이들의 한 끼 식사에 해당되는 금액이 우리 빠야따스의 아이들에게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 되어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게 되었으니 저희들도 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는 잊지 못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원주 까리따스 회장님과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후원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세요. 카리타스 수녀회 김정임 수녀 드림

네팔

카리타스 후원회 여러분들께

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네팔이라, 미리 계획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정에 없던 총파업(네팔어로는 ‘반다’라고 합니다. 닫는다는 의미입니다)이 너무 잦은 나라라서, 이번에도(12월 20일~22일까지) 네팔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마오이스트 반군들이 도로에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막고,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통제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영문도 모르고 도착한 승객들은 걸어서, 혹은 수백 배의 웃돈을 주고 시내로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12월21일날 공항에서 픽업해야 할 손님이 있었는데 저의 남편이 공항까지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가고, 손님 여섯분은 무슬림 단체 관광 버스에 툼에 끼어 타고, 저의 남편과 손님 몇분은 차량 지붕에 타고 시내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나마 차가 한 대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지요.

이런 상황이어서 학교들도 미리 다 방학을 했습니다(레지나 아모리스 학교도 12월18일에 방학을 하였습니다). 총파업이 풀리던 날 베로니카 수녀님께 카리타스에서 받은 후원금을 전해드리고, 그날로 아이들 산타 선물 사서 그 다음날(12월24일) 학교 근처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는 성탄 노래 부르고, 선물 주신 미국에 계신 산타분들께 감사기도드리고, 조촐하게 케익 자르고, 선물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수녀님은 시간이 넉넉지 않아 아이들 산타 선물로 전교생에게 책가방을 하나씩 사 주고, 남은 돈으로는 학교 체육용품과 학용품 등을 구입해서 앞으로 있을 크고 작은 행사에 시상품으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24일) 저녁 미사 준비하느라 실외는 몹시 바깥기에 실내에서 행사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사진이 많이 어렵습니다. 몇 장 골라서 보내드립니다. 늦었지만 성탄 축하드리고, 산타 선물로 아이들이 더욱 행복한 성탄을 맞을 수 있게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팔에서 김지나 드림





천사들의 집

천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눈의 나라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춥고 쌀쌀한 마음 마저 드는 이때에 지난해 성탄 때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로 아이들 성탄 선물을 준비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날도 겨울 들어 처음으로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러 여러 선생님들과 아이들 몇 명이 같이 동행을 하였는데 몸으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많이 추웠지만 가는 발걸음과 마음 만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따스함으로 충만되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가슴깊이 남아있답니다.

어느 책에서 본 듯한 글귀가 생각 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

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

별써 해로 두 번째 인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두 번째에도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즐거운 성탄절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많은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이때 여러분의 작지만 큰 정성으로 즐거운 성탄과 겨울을 지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사랑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단 한 번 밖에 없어서 매년 같은 사랑을 저희 아이들에게 주신다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본질적인 사랑이기에 비록 여러분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쁜 캐릭터 장갑을 끼고 눈을 문치며 좋아라 하던 아이, 귀엽고 따스한 털 장화를 신고 눈발을 뛰어 다니는 아이, 추운 날 학교

다니면 귀가 시렵다고 귀마개를 사달라고 하던 아이 - 아이들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대해 다 서술하고 싶지만 마음만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보면서 저희들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겸허함을 갖게 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좀 더 아이들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사가 되리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움직이지 않듯이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 함께 했으면 하는 큰 소망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름다운 천사들의 집에 오셔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갖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또 다른 소망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다른 어떠한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카리타스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산타가 되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어떤 말보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올해도 저는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을 한 아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뜻 깊은 성탄인데 이렇듯 선물까지 받고 나니 기분은 하늘을 날아갑니다.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께서 알아채지 못하셨을까봐 많이 걱정 했어요. 혹시나 산타할아버지께서 못 들으셨다면 주님께 알려주십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즈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혹시 내 기도가 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갖고 싶었던 선물을 제 가슴으로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분께 이렇듯 많은 선물을 받고 보니 그 동안 나약하게 살아왔던 제 자신이 송구스러웠습니다. 장애를 핑계로 나약하기만 한 저에게도 이렇듯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시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아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먼저 듭니다.

저희는 무슨 날이면 더욱 더 춥고 외로웠습니



다. 온 세상이 구세주 오심을 기뻐하는데도 저희는 자신의 외로움과 싸우느라 기뻐할 새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정도 나이가 있어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지만 어린 동생들은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마음이 외로운 우리 동생들과 친구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잊지 않으시고 찾아 오셨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하여 그 빨간색 옷을 바로 쳐

다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저희에게 산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은 저희 삶에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따뜻함을 알게 해 주셨고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은총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저희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제 몸은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드는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저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 은총 가득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매년 성탄 선물을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의 집에는 108명의 장애아동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원주 카리타스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108명의 친구들이 풍성한 성탄절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성으로 마련해주신 선물과 함께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덤으로 받았으니 말이에요.

보내주신 산타 선물비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쁜 신발과 가

방, 예쁜 옷들을 구입해 산타 할아버지께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집 모든 아이들이 성탄에 모였을 때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나눠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예쁘고 좋은 것은 다들 아는 것 같아요. 싱글벙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이 언제 불러워질까 산타 할아버지 앞으로 용기종기 모여 들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이란 정말 실제로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덕담과 잘못된 행동에 대한 꾸짖음도 기분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큰소리로 ‘네’ 대답하는 모습과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는 아이들의 노

력에서 2010년 새해의 희망을 봅니다.

선물을 받은 친구들 중 침을 흘리는 아이는 새 옷을 입고 침도 덜 흘리고 싱글벙글 웃는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났으며, 새 신발을 신고 방 안에서 경중경중 뛰는 모습이 얼마나 천진해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친구들은 표현은 잘 못해도 내심 내년을 또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산타가 되어투셔서 고맙습니다”

장경희 <원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

형성/원주

12월 24일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 원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웃고 떠들며 손에는 악기를 하나씩 들고 미리 준비해 둔 캐롤송을 들으며 행사준비에 바쁜 직원들, 저마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기쁨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원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매년 성탄절날 지역 내에 거주하는 빈곤가정 어린이들의 기쁨을 방문하여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가장 바쁜 시기에 모든 개인적인 업무까지도 뒤로 미루며, 소외된 아동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수염을 달으니 정말 산타가 된 것 같습니다. 산타 복장을 한 선생님들이 머리에는 시슴뿔과 천사 문양의 장식을 하고 자칭 ‘루돌프’라 부르며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면서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아이들 집 앞에서 조심스레 방문을 노크합니다. 문을 열고 아이들이 나오면 큰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의 혼을 쑥 빼 놓고는 준비해 간 성탄 선물과 케익을 전달하면 어느새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미국 버지니아 후원회에서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를 통해 68명의 지역내 빈곤가정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 12월초부터 복지관에서 진행된 “희망의 산타-성탄 케익을 선물해주세요”를 통해 62명의 빈곤가정 어린이들과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에게 성탄 케익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성탄 케익에 고마움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시던 어르신들, 1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책상 한쪽에 둔 아이,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늦은 밤까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던 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가슴 한켠이 먹먹하게 아프고 콧등이 시렸습니...

다. 너무나 가난해서, 부모가 없어서, 필요한 것조차 가지지 못했던 아이들, 성탄 전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타의 선물을 받고 환한 미소를 보내주던 아이들의 맑은 눈길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줍게 고마움의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후원자님들, 특히 버지니아 복지재단의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의 크리스마스를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기 위해 발로 뛰며 함께 애쓴 복지관 직원들도 모두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었을 것 입니다. 새해에는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버지니아 후원회 회원님들께..

2009년 성탄절 행사에 도움을 주신 버지니아후원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에게 2009년의 겨울이 그리움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후원회 여러분들의 온정과 사랑이 늘 침실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 소망하고 희망하던 선물을 받으며 기뻐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삶에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와 웃음이 가득한 하루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발주한 겨울의 끝자락에 버지니아후원회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성과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버지니아후원회 회원님들께 작은 분배하나를 선물합니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와 밝은 웃음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물하고 아이들이 되돌려준 선물입니다.

2010년 경인년 힘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버지니아후원회 여러분께 행복과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보내주신 정성과 사랑에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배 은 하 신부



카리타스, 최기식 신부에 이웃돕기 성금 5천 달러 전달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부)은 3월30일 위싱턴을 방문 중인 최기식 신부(원주 교구 사회복지회장 겸 천사의 집 원장)에게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5천 달러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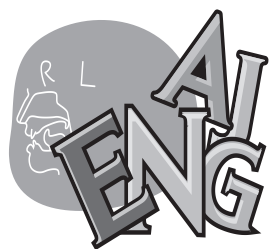
부활절 피정 지도자 미주 한인 성당과 공소를 순회중인 최 신부는 “카리타스 후원자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위싱턴 한인사회의 바른 기부문

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성금은 장애인, 독거노인, 영세민,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해 요긴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에서 최 신부는 성 정 바오로 성당의 부활절 미사강론을 비롯하여 WBS 초대석, 복지재단 감사 및 후원모임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최 신부는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고지학순 주교와 함께 1년 반 투옥된 데 이어 83년 미군문화 방화사건에 연류돼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 활동에도 헌신했다. 83년 원주교구사회복지후원회를 설립한 이후 27년째 원주 지역 고아들과 가난한 장애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한국일보 정영희 기자〉



Facts and Fiction in the Kitchen

(부엌의 진실 게임)

생활 속의 각종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해주는 Real Simple이라는 잡지를 보다가 “굴은 알파벳 R이 들어 있는 달에만 먹으라. (Eat oysters only in months with an “R”)”는 큼지막한 글씨가 내 시선을 끌었다. R이 없는 달을 따져보니 May, June, July, August. 결국 여름에는 굴을 먹지 말라는 충고였다. 예전에는 냉장 시설이 미비했으니 음식이 상하기 쉬웠을 테고 상한 굴을 먹을 경우 결과는 뻔한 일. 일리 있는 속설(myth)이다.

이것과 함께 소개된 또 다른 미국의 속설은 오븐에서 케이크를 구워서 꺼냈을 때 케이크가 ‘바람 빠진 풍선(a deflated balloon)’처럼 부풀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떠들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경우 엄마나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빵 굽는 동안 너희들 떠들었구나! (You weren’t quiet enough when the cake was in the oven.)”라고 꾸짖곤 했다는데, 이건 그야말로 얼터당토 않은 속설이다.

여하튼 이 기사는 사람들이 요리나 음식과 관련해 근거 없이 믿는 이런 저런 얘기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사실 여부를 알려주는 흥미롭고 유용한 기사였다. 제목도 ‘Facts and Fiction in the Kitchen(부엌의 진실과 허위)’이라고 했는데, ‘부엌의 진실 게임’이라고나 할까? 이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진실 or 거짓

“와인이나 맥주, 증류주 등 어떠한 종류의 술이든 매일 조금씩 마시면 몸에 좋다. (Drinking a moderate amount of any kind of alcohol—wine, beer, or spirits—every day is good for you.)”: 진실이다. 술에 함유된 알코올이 HDL (high-density lipoprotein, 고비중 리포단백질)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단, 조금 마실 경우 (drinking in moderation)에 한해서다. 예를 들면 여성은 와인 한 잔, 맥주는 작은 병으로 한 병 정도가 적당하다.

“물은 냄비 뚜껑을 덮고 끓이면 더 빨리 끓는다. (Putting a lid on a pot makes water boil faster.)”: 거짓이다. 필자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물론 물이 끓는 동안 수증기(steam)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 주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워낙 미미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라고.

“푸른 채소를 팔팔 끓이면 영양분이 몽땅 달아난다. (Boiling a green vegetable causes it to lose all its nutrients.)”: 거짓이다. 비타민은 수용성(water soluble)이므로 대부분 없어지지만 철(iron)이나 칼륨(potassium)과 같은 주요 영양소는 빠져나가지 않는다. 게다가 몸에

좋은 야채 섬유소(fiber)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 은 있다. (Decaffeinated coffee has caffeine in it.)”: 진실이다. 그래도 카페인의 97~99%는 제거된다. 하지만 하루에 6~10컵씩 마시거나, 카페인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면 커피 속에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카페인으로 인해 수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버섯은 절대로 물에 씻지 말라. 수건으로 털어야 한다. (Never rinse mushrooms; they should be brushed off with a towel.)”: 진실도 되고 거짓도 된다. 버섯은 스펀지처럼 흡수력이 뛰어난 데다 90퍼센트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종이 타월 같은 것으로 털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수 밖에. 하지만 물에 씻어도 상관은 없다. 단, 목욕(bath)이 아니라 샤워(shower)를 시켜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야만 버섯의 제 맛이 유지된다.

“버터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상한다. (Butter spoils when it’s not in the refrigerator.)”: 거짓이다. 물론 절대로 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것과 비교하면 상하는 속도가 훨씬 더디다. 버터에는 소금이 첨가돼 있어 부패를 촉진하는 박테리아(spoilage bacteria)의 성장을 저지하기 때문. 따라서 냉장고가 꼭 차 고민이라면 버터는 꺼내 놓아도 괜찮다.

[잠깐 한마디]

A: Are you having ANOTHER drink before dinner? (저녁식사 전에 또 마시는 거예요?)

B: Quit schooling. Doctors are saying drinking is good for you. Ha! (흔계 좀 그만 뒤요. 의사들 말로는 음주가 몸에 좋대요. 하하!)

A: You forgot something. Only in moderation.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 적당히 마실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홍사원 <전 UNICEF 아동보호 자문관>

얼마 전 세 여자들이 노래하는 작은 음악회에 간 적이 있다. 그들은 전문적인 성악가가 아니라 단지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었다. 아니, 단지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공연이라기 보다는 음악에 대한 헌신과 용기, 의지, 그리고 공연자로서 천부의 재능을 보여준 이들의 공연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공연은 Levine School of Music의 “Musicali Tea!” 컨서트 시리즈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다. 내가 그 학교의 공연을 참관하기는 이번이 두번째인데 첫번째 공연만큼 매우 즐겼다. 처음으로 공연을 보러 갔을 때와의 차이를 굳이 말하자면 이번에는 이 음악회에서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미리 알고 갔다는 정도이다.

내가 몇달 전 처음으로 그 학교의 음악회에 갔을 때는 그 컨서트 시리즈가 유명한 뮤직 스쿨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그 당시 나는 정년퇴직 후 시간이 나니 피아노를 다시 배워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나의 관심은 음악회보다는 그 학교의 피아노 클라스를 알아 보는 것에 더 있었다. 컨서트 홀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장소를 잘못 찾아간 줄 알았다. 방안 빼곡히 앉아 계신 나이드신 분들! 아니, 그냥 나이드신 분들이라는 표현보다 아주 아주 많이 나이드신 분들이라 표현해야 할 분들이었다. 만약 그 때 중년 남자가 그랜드 피

내게 영감을 준 세 여성

아노 앞에 앉아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냥 걸어 나올 뻔 했다. 주저하며 작은 무대를 향해 앉은 노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앉아서 둘러보니,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구부정하고 몇 분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어떤 분들은 아하다 싶을 정도로 밝은 색의 옷을 입으셨고, 어떤 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젊음이 지난 얼굴에 너무 짙은 화장을 하신 듯 했다. 우아한 옷차림과 단정한 머리를 하신 분들도 몇분 보였다.

그날의 프로그램과 연주자들을 소개한 피아니스트에 의하면 그 학교 학생들의 나이는 4세부터 99세에 이른다고 한다. 99세의 학생이 82세의 딸과 함께 성악 공부를 하고 있다니! 이 학교에서는 커뮤니티 서비스의 하나로 시니어 홈의 식구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한다는 것도 알게 되며 청중들이 왜 모두 나이드신 분들인가에 대한 내 의문이 풀렸다.

음악회 동안 대부분의 청중들은 주의깊게 듣고 있었으나 몇분의 나이드신 분들은 주무시고 계신 것도 볼 수 있었다. 연주자들은 그 학교의 교수들 (뛰어난 음악가들) 과 고등의 (나이나 기술면에서) 학생들이다. 교수들의 공연이 기술면에서 뛰어났다면 학생들의 연주는 기술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어도 훨씬 더 진지함을 보여주었다. 음악회가 끝날 즈음에는 연주와 분위기에 취하여 피아노 클라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완전히 잊은 채 음악회에서 들은 음악을 혼자 흥얼거리며 집까지 걸었다.

이처럼 첫번 음악회를 즐겼기에 다시 이 학교의 음악회를 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는 피아노 클라스에 대한 관심 없이 순전히 음악회를 위해 갔다. 첫번째 음악회 때처럼 대부분의 청중은 지역의 노인 커뮤니티 홈에서 오신 분들이었고 연주자들은 이 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이었다.

교수진의 네 손의 피아노와 합시코드 연주자 있을 후, 세 명의 여성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긴장감을 웃음으로 애써 감추려는 듯 했다. 아마 그들의 평균 연령이 70정도 될까. 각자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 검정 드레스에 액센트를 주기 위해 색있는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이 여자들의 몸체 크기도 서로 달라 옷 사이즈로 말하면 사이즈 4부터 XXL 사이.

이 세 명의 여성은 네 개의 짧은 곡을 불렀다. “와!” 나는 감탄했다. 내가 여태껏 본 중 가장 매력적인 그룹 중의 하나임에 틀림 없었다. 사실 노래를 가장 잘 하지도, 가장 예쁘지도, 가장 자 극적이지도 않은 그들이었고 때로는 어색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나이드신 여성들은 진정으로 노래를 불렀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은 음악에 대한 확신과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공연에 임하고 있었다. 처음의 긴장감에서 풀려난 후 그들은 음악의 기쁨, 동지간의 우애, 상호 지원을 발산하는 듯 했다. 그들이 얼마나 당당해 보였는지... 그들의 기상이 방에 넘쳐나는듯 했다.

함내서 잘 하세요! 아마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응원을 보냈나 보다.

이들은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것에 대한 그동안의 내 상반되는 감정을 상기시켰다. 나는 나 자신의 제약을 너무나도 잘 안다. 내가 음악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이 불행한 사실과 연습에 필요한 자기 단련의 부족은 피아노 레슨의 실현을 점점 더 멀리하게 만들었다. 이 세 여성들이 내게 보여준 것은 충분치 못한 재주의 약점도 적극적인 자세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내 제약을 받아들이고, 잘 하지 못하더라도 수치스러워하지 말며, 나 자신이 즐기 위해 피아노를 치라고 가르쳐 주었다.

Levine School에 가서 이같이 고무적인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연주를 자주 접하노라면 언젠가는 영감을 받아 피아노 레슨을 다시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말치 않은 장래에 내 근사한 피아노가 나의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비싸며 가장 쓰이지 않는 우리집 장식품이 아니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나는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다. <유자경 번역>

I recently attended a musical event at which a trio of ladies sang for a small audience. They were not professional singers, just women who love music. Well, not “just” lovers of music: their performance showed their commitment, their nerve in performing before an audience, their determination, and-not least-their flair as performers.

The event was held as part of a “Musicali Tea!” program at the Levine School of Music. This was my second visit to the School, and loved it as much as the first one. The only difference was that, this time, I knew what to expect.

A few months back when I went to a concert there for the first time, I knew very little about their concert series, except that it was organized by the famous music school. At the time, I was debating with myself whether I should resume piano lessons now that I was retired. Hence, I was more interested in finding out about the Levine’s piano classes than in the concert.

As I walked into the concert hall I thought I was in the wrong place. The room was packed with elderly people! Everyone looked ancient, not even just plain old. If it hadn’t been for a middle-aged man playing a beautiful Mozart piece on a grand piano, I would have walked out. Hesitantly, I took a seat in the midst of the old folks, facing the small stage. As I looked

around, I noted that many were stooped with age, and some were in wheel chairs. Some ladies were dressed in overly colorful outfits, and a few ladies had slathered far too much make up on their no-longer young faces. Only a very few wore elegant dresses and were well-coiffed.

According to the pianist who introduced the program and the performers, the age of students at the school ranges from 4 to 99. A 99-year-old is taking voice lessons, along with her 82-year-old daughter! I also learned that the Levine School regularly invites the residents of local senior homes as part of its community service, which explained why the audiences were so old on both my visits.

During the concert, some in the elderly audience dozed off, although most paid close attention. The performers consisted of faculty members (accomplished professionals) and advanced □ in age and skills—students. While the former performed their pieces with professional ease, the student performers were even more earnest, if somewhat less competent. By the time the concert ended, I was so moved by the performances and the ambiance that I forgot to check

on piano classes and walked home, humming the music.

Since I enjoyed the first experience so thoroughly, I decided to go back. This time, just for the concert, with no more thoughts about taking piano lessons. Like the first concert, the audience consisted mainly of residents from a local silver-community home, and the performers were a mix of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After four-hand piano and harpsichord performances by faculty members, three women slowly appeared on stage, hiding their nervousness behind big grins. Their average age must have been at least 70. Each wore black outfits of a different design with colorful scarves as accents. The size and shape of three ladies was different, ranging from 4 to XXL. One of them literally waddled.

The trio sang four short songs. I was wowed. This was surely one of the most charming groups I have ever seen. Not the best singing; not the prettiest; not the most exciting; and often awkward and stiff. But, these elderly women really sang! More correctly, they performed with confidence and verve. Once they got over their ini-

tial nervousness, they exuded a joy of music, comradeship, and mutual support.

Go for it, ladies! I must have cheered louder than anyone.

Their example prompted me to revisit my life-long ambivalence about learning to play the piano. I know my limitations all too well: I have no musical talent whatsoever. That unfortunate fact is aggravated by poor discipline about practicing. What the three captivating ladies showed me was that even insufficient talent can be compensated for given a positive attitude. They taught me to accept my limitations, not to be ashamed of not being good enough, and just to play the piano for pleasure.

I hope that more visits to the Levine School and more exposure to such stimulating amateur musicians might one day inspire me to start piano lessons again. I hope that one day soon, my beautiful piano might no longer be the most expensive, and least used, piece of furniture at my house, as my husband refers to it. I now feel hopeful.



Three Inspiring Ladies

Sawon Hong (UN Retiree, former Regional Advisor on Child Protection, UNICEF)

서울에 있는 성동 녹음봉사센터(구 성동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녹음봉사자들이 책을 읽어 녹음하여 CD에 담아 공급하고 있다.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은 지난 해부터 성동 녹음봉사센터로부터 녹음도서를 받아 노안이나 안구 건조 등 시각장애가 있는 미국 거주 동포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판매 수익금은 성동 녹음봉사센터에 보내져 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 및 사업에 쓰인다.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 친교실에서 일요일마다 녹음도서를 판매하는데 가끔씩 “이것이 원본이냐?”는 질문을 받는다. 아마도 저작권(copyright)에 관한 질문인것 같다. 성동 녹음봉사센터에서는 장애인에게 보급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출판사로부터 녹음도서 제작을 허락받았다. 따라서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도 노안 (50세 이상)이나 다른 이유로 시각장애가 있어 책을 읽기 힘든 분들에게 한하여 녹음도서를 보급하고 있다. 현재 60권 정도의 녹음도서를 보급하고 있으며 신청문의는 전화 571-432-9868로 하면 된다. 권하고 싶은 몇 권의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내용은 인터넷의 yes24와 알라딘 서점 사이트에서 발췌).

영원한 기쁨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지음, 바오로딸 출판, 최정희 녹음

이 책은 교회의 박사이자 기도의 큰 스승인 알폰소 성인의 마지막 작품 「거룩한 묵상: Riflessioni Divote」을 각색, 재배열한 것이다. 성인은 주교였던 78세에 건강도 좋지 않았던 노구의 몸으로 특별히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이 책은 전체 35개의 소제목으로 꾸며졌다.

신앙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시련에 관해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쉬우면서도 때로는 예리하고 명료한 음성으로 전해준다.

평이한 문체와 내용을 통해서 성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또한 성인이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얼마나 큰 연민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감지하게 한다.

훌륭한 음악가이기도 했던 알폰소 성인은 신앙의 기본 주제를 우리의 지성 안에 더욱 또렷하게 울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이 메아리치게 한다.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한다.

저자인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는 1696년 이탈리아 나폴리 근교 마리아넬리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열여섯 살에 나폴리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유능한 변호사로 일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직을 버리고 오라토리오회에 입회하여 1726년 사제로 서품되었다. 성인은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1732년 구속주회를 창설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따라 나폴리의 서민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데 전념했다. 1762년 주교로 임명되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전개했으며, 1775년 주교직을 사임하고 노체라로 돌아와 1787년 선종했다. 1816년 시복되었고, 1839년 시성되었으며, 1871년 교회박사로 선포되었다. 1950년 교황 요한 비오

12세는 고해사제와 윤리신학자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다. 저서로는 <윤리신학>, <성모 마리아의 영광>, <한 달간 매일 드리는 성체조배>, <축복받은 성찬의 초대>, <나의 친구 나의 하느님> 등 100여 권이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엔 반 투안 지음, 바오로딸 출판, 김화정 손태옥 녹음

베트남 태생의 추기경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엔 반 투안의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는 베트남이 공산화된 1975년부터 1988년까지 13년간 감옥생활을 하다가 석방되자마자 추방당하여 로마에 정착한 저자가, 2000년 대회를 맞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초대로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신수련 피정강론을 담았다.

총22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을 권한다. 13년간의 감옥생활을 신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을 품으면 새로운 날이 밝아온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엔 반 투안 신부는1928년 베트남 푸칸의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1941년 열세 살 되던 해 소신학교에 입학했다. 1953년 사제품을 받았고, 우르바노 대학에서 교회법 박

녹음도서를 소개합니다

사학위를 받은뒤 1959년 조국으로 돌아와 나트랑 신학교에서 가르쳤다. 1967년 나트랑의 주교로 임명되었고 베트남 주교회의의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1975년 사이공의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되었으나 공산주의 정부에 체포되어 13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 지은 책으로는 <희망의 길>, <희망의 기도>, <지금 이 순간을 살며>등이 있다. 1988년 석방되었으나 추방당하여 조국을 떠나 로마로 갔다. 요한 바오르 2세는 1994년 그를 교황청 정의 평화위원회 부의장으로, 1998년에는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2001년에는 추기경에 서임되었다. 2002년 9월 16일 향년 74세로 로마에서 선종했다.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스님 지음, 문학의 숲 출판, 채영교 녹음

법정 스님은 서문에서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마무리의 사전적 의미는 일의 끝맺음이다. 인생에서 뜻하는

마무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을 뜻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그때그때 삶의 매듭들이 지어진다. 삶의 종착점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생에서 하나씩 지어지는 매듭이 모여 비로소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어낸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현대인의 정신적 스승이라 불리는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매듭짓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영적 지침서이다. 의미없는 매일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선택한 삶을 이끌어어나가는 방법과, 순간 속에서 영원을 발견하고 순수와 본질의 세계를 회복하는 길을 알려준다.

이 책에서 법정 스님은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저자인 법정스님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다가 대학 재학 중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다. 오대산의 절을 향해 떠났지만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막히자 서울로 올라와 선학원에서 당대의 선승 효봉 스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그 자리에서 삭발하고 출가했다. 다음날 통영 미래사로 내려가 행자 생활을 했으며, 사미계를 받은 후 지리산 쌍계사 탑전으로 가서 스승을 모시고 정진했다. 그후 해인사 선원과 강원에서 수행자의 기초를 다지다가 28세 되던 해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서울 봉은사에서 운허 스님과 더불어 불교 경전 번역 일을 하던 중 함석헌, 장준하, 김동길 등과 함께 민주주의국민연합의회를 결성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지음, 창비 (창작과 비평사) 출판, 임순남 녹음

신경숙의 8번째 장편소설. 2007년 겨울부터 2008년 여름까지 「창작과비평」에 연재된 작품이다. 지하철역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실종된 어머니의 흔적을 추적하면서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을 그렸다. 각 장은 전단지를 붙이고 광고를 내면서 엄마를 찾아 헤매는 자식들과 남편, 엄마의 시선으로 전개된다.

늘 곁에서 보살피주고 무한정한 사랑을 주지만 하던 엄마가 어느날 실종됨으로써 소설은 시작된다. 딸, 아들, 남편으로 관점이 바뀌면서 이야기가 펼쳐질 때마다 가족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엄마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시골동네에서 태어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오남매를 낳고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엄마의 인생, 각자가 간직한 그러나 서로가 잘 모르거나 무시했던 엄마의 인생과 가족들의 내면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 신경숙은 1963년 1월 전라북도 정읍에서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열다섯 살에 서울로 올라와 구로공단 근처에서 전기회사에 다니며 서툰 일곱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사는 ‘닭장집’에서 큰오빠, 작은오빠, 외사촌누이와 함께 한 방에서 살았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뒤 1985년 ‘문예중앙’에 중편소설 〈겨울우화〉로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하였다. 작품으로는 〈강물이 될 때까지〉, 〈품금이 있던 자리〉, 〈오래 전 집을 떠날 때〉, 〈딸기밭〉, 〈깊은 슬픔〉, 〈외딴방〉,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바이올렛〉 등이 있다.

원주 후원회 소식

사랑의 도시락 배달

권순해 <행복 원주 명예기자>

끼니를 걱정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보다 반가운 것이 또 있을까.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은 결식이라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 가정에 한 끼의 밥을 제공하여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원주시와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락 배달에 자원봉사자들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지하 식당에는 담당 복지사와 조리사, 자활선생님, 봉사자들이 도시락을 싸느라 바쁘다. 조리대 앞에서 장조림을 만들고, 튀김을 하는 봉사자들은 얼굴에 땀 흘린 땀을 닦을 새도 없다. 봉사자들 대부분이 주부들이라 반찬 만드는 솜씨도 일류 요리사 못지 않다.

조리 봉사자들이 밥과 국, 서너 가지의 반찬, 과일, 음료수 등으로 정성스럽게 싸 도시락을 배달봉사자들은 지역별로 구분해 배달한다. 어르신들께는 주 5회, 하루 33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아동들에게는 평소에는 주말 석식, 방학 동안에는 주 2회 중식을 81명의 아동들에게 전하고 있다. 또 매일 복지관을 방문하는 어르신들께도 마음이 담긴 점심을 대접하고 있다. 대상자들의 영양과 기호, 계절 등을 고려하여 식단을 짜고, 위생패에 진공 포장하여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한다.

“날이 춥거나 더울 때는 불편할 때도 있지만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루도 빠질 수가 없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는 무궁화 라이온스 우재숙 회장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 일들이 많다.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회원들도 이제는 도시락 싸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고 한다. 눈이 녹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도시락을 들고 아이들과 어르신들께 전해주는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정미정 복지사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한 끼의 식사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시락 배달은 조리에서 배달까지 봉사자들의 힘이 크다고 강조한다. 또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아동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정미정 복지사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급식뿐만 아니라 아동들에게 쉽게 접할 수 없는 난타 공연관람, 외식 등의 문화체험도 실시하는 등 가톨릭 정신과 사회복지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사업을 벌이고 있다.

『다문화가족 관계증진 워크숍』 진행을 마치고

박은영 <영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팀장>

다문화가정 내 일어나는 갈등의 주된 원인을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의 문제, 한국 남편의 무관심, 폭력?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게으름, 욕심- 잘 모르면서 나는 그렇게 함부로 생각했다. ‘다문화가족’ 워크숍은 이런 나의 사회적 편견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계기가 됐다.

작년 겨울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걱정으로 사전에 기획한 경주 가족여행을 접어야 했다. 결혼 이후 가족들끼리의 여행은 처음이라며 손꼽아 기다렸던 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의 대신으로 준비

이동하였다.

프로그램 첫 시간, 서로의 별칭을 지어주고 그 이유와 느낌을 말해주며, 그동안 몰랐던 서로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도 아직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어색하고 평소 관계가 편하지 않은 부부는 서로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다.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말보다 말투, 억양과 표정이 더 중요하며, 그보다는 따스한 접촉이 더 많은 감정과 느낌을 전달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나니, 한국 남편들의 변화와 참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장민수 강사님이 쉬는 시간마다 남편들과 함께 담배를 피운 것이 특특히



한 프로그램이 바로 다문화 가족 관계증진 워크숍이었다.

출발하는 날부터 함박눈이 펄펄 내렸다. 어느 때 같으면 몹시 반가웠겠지만, 혹시라도 망설였던 분들이 날씨로 인해 마음을 바꾸실까봐 부지런히 확인 전화를 드렸다.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 전날부터 몇 번이나 우리를 애타게 하시던 분이 길이 미끄러워 재를 넘기가 힘들겠다고 못가겠다고 하신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냥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한 차로 집 앞까지 모시러 간다고 했더니, 체념하신 듯 그냥 알아서 오겠다고 하신다. 그렇게 다섯 부부와 그 자녀들. 그리고 혼자라도 함께 하고 싶다는 따라나선 여성 결혼이민자들, 전문 통역사, 아이 돌보미, 자원봉사자 등 버스 안 가득 기대와 설렘도 함께 싣고 캠프장으로

효과를 본 것 같다. 이럴 때에는 나도 남자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모국의 친정 어머니에게 자국어로 말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말하도록 하였으며, 그것을 배우자들이 지켜보게 하였다. 바라보는 남편들의 시선이 몹시 복잡해지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더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용감하게 털어놓고 새로운 삶에 대해 용원을 요청하는 분도 계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고 웃으며 그 시간을 마무리 했다.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이 행복했고, 나는 여전히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믿으며 사는 내가 참 좋다.

원주 후원회 소식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

김금진 <장애인주간보호소 샘터 사회복지사>

문 틈으로 들려오는 친구들의 대화소리를 들으면서 지난 10여년을 돌이켜 봅니다. 2001년 3월 8일 삼척 성내동 성당 내에 “샘터”라는 장애인 주간보호소에서 처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맞이한 그날의 기쁨과 감격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미 샘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순번으로 돌아가며 이용자들을 돌보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통감하면서, 장

하는 등의 연주가 다소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비누공예’ 활동이나 ‘조형, ‘원에 활동’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본인이 만든 작품을 아끼고 소유하고 싶어 하며,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등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신체활동이 활발한 성인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운동기구를 이용한 기초체력과, 운동기구에 대한 테크닉을 익히고, 년 2



해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김종인 마태오 신부님(현 영월 성당 주임)께서 샘터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2006년 인사이동으로 홍금표 알베노 신부님(현 법인상임이사)을 원장으로 맞이하였고, 2007년 10월에 현재 전덕중 안드레아 신부님이 원장으로 오셨습니다.

초창기에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은 학습의 한계점이 나타났고, 장애인들의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을 채워주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강원 공동모금회나 강원랜드 복지재단 등 다양한 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악기를 이용한 재활활동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오랜 시간의 배움을 통해 리듬과 박자를 익

회 이루어지는 등산활동을 통하여 성취감과 자존감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1박2일 동안 이루어지는 ‘특별한 세상보기 및 캠프’는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녀의 장애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 그리고 위기를 겪고 있는 부모의 심리적 상처를 가볍게 하고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되는 기쁨도 얻었습니다.

결코 낯선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갑게 맞으며 먼저 손을 내미는 샘터 친구들! 그동안 우리친구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많은 봉사자들과, 많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알토란같은 후원자들도 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루 손가락으로 헤아릴수 없는 많은 분들 덕분에 샘터 친구들은 오늘도 날개짓을 합니다. 더 멀리~~, 더 높~~아

노인 일자리 ‘횡성 손맛 사업단’

박예림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배은하 신부)에 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에서 쓸쓸히 홀로 생활하고 계시는 150여명의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음식을 전달해 드리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이 기금은 횡성 노인일자리 사업팀인 ‘횡성 손맛 사업단’에서 감자떡과 만두, 송편을 빚어 판매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 행복하시다는 어르신들, 그래서 더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십시일반 후원해주신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 덕분에 지역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노인의 오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력으로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로 쓸 만큼의 재력, 셋째는 배우



‘횡성 손맛 사업단’은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2007년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감자떡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어 황토소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자떡은 날로 인기와 명성이 높아져 명절이 되면 주문이 밀려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토소금 또한 직접 황토용기를 구워 질 좋은 소금을 만들어 내고 있어 한번 맛 본 고객은 반드시 찾고 있으며,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홀몸 어르신들은 찾아 줄 가족이 없어 더욱 서럽고 외롭기만 할 때입니다. 어르신들의 설움을 함께 나누고자 같은 처지이신 어르신들이 힘을 합쳐서 감자떡을 빚고 만두를 빚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생활이지만 일이 있

자, 넷째는 일거리, 그리고 다섯째는 친구랍니다. 이 ‘오복’ 중 노인 일자리는 셋째 배우자만 제외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준다고 참가자들은 말합니다.

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나 일이 있어 즐겁고, 노년의 무료함을 일로서 달래며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어 행복하고, 적으나마 그에 따른 댓가도 지불 받고 있어 손자들 용돈을 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사업단 덕분에 일도 하고 몸도 더욱 건강해 져서 노년의 삶이 무료하지 않고 더욱 생기가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도 다지셨습니다.

횡성 손맛 사업단이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업단으로 더욱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고국 아동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가정,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다른 친척집에 맡겨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는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달에 \$60씩 후원을

하며 아이들과의 삶을 함께 나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후원 연결이 되면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50은 아이들 통장으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으며, \$10은 결연아동을 관찰하는 복지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703 994 3531 (한린다 안젤라)

이민지 (9세)

민지네는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와 함께 네 식구가 생활하는 조손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외지에 계시지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몸이 불편하시며, 어머니는 민지가 영아시절에 도박으로 빚을지고 가출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 때 생긴 도박 빚을 민지 아버지가 변제하고 있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병환으로 아이들 양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지는 어려서 약물사고로 지적장애 2급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행동이 산만하고 본인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인지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똑똑하고 학교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치료실 선생님은 부족한 어머니 사랑때문이라며 정서적인 지원을 해 주면 지금보다 안정될 것이라 합니다, 사랑이 모자란 민지에게 가득한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형성군종합사회복지관 추천**

이경륜 (11세)

경륜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경륜이가 어릴적 어머니의 도박 빚으로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빚을 변제하여 생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한 병환으로 아이들 둘을 양육하시는데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경륜이는 4학년이지만 강마르고 체구도 아주 작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냐고 할머니가 물어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은 경륜이는 먹고 싶은 것이 많고 좋아하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 상황에 조금이나마 조부모에게 미안함을 털려고 경륜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젓한 경륜이에게 결연을 통해 희망을 안겨 주시길 바랍니다. **형성군종합사회복지관 추천**

민지희 (8세)

아버지는 공공근로를 나가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시지만 지적장애로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하셔서 큰언니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작은언니, 작은오빠가 지적장애 경계선상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생활환경이 열악합니다.

지희는 초등학교 1학년 초기까지 숫자와 한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똑똑하고 성격이 밝아 현재는 한글과 숫자에 대한 개념도 생겼고 자신감도 조금씩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깨끗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지희에게 힘이 되어주실 후원자님을 찾습니다.

형성군종합사회복지관 추천

이현수 (8세)

현수는 태어날 당시 정상인으로 태어났으나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항상 혼자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TV를 보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비디오 증후군 장애 1급을 받은 후천성 장애 아동입니다. 부모님과과의 잦은 마찰과 불화로 천사 장애인 요양원에 맡겨졌습니다.

현수가 시설 입소 후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공사장에서 일하시며 근근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주 현수를 보러 오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어린 아동이어서 사랑이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아동인데 충분한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현수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준다면 앞으로 현수의 삶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천사장애인요양원 추천**

신은경 (13세)

은경이의 어머니는 일본인이며 아버지와는 통일교라는 종교를 통해 만나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시어 한국말을 아주 잘 하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일본어 강사를 하시지만 수입은 많지 않고, 아버지는 가끔 일용직을 하시어 가정형편이 어려워 5남매는 월 14만원 월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운증후군 장애를 갖고 있는 은경이는 예쁜 외모와 조용한 성격을 지녔으며 지녔으며 인형놀이와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천사들의 집에서, 은경이는 자기보다 불편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동생들도 잘 돌보고 예뻐합니다. 항상 친구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천사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은경이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필리핀 바이파스 아동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 Ma Imari Rose L. Palo
나이: 10살, 초등학교 4학년
희망: 선생님

Imari는 2녀 10남 중 아홉째이다. 바이파스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시는데 매일 건축공사를 돌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찾고 있기에 고정 수입은 없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형편이다. Imari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한다. 아주 똑똑하고 공부시간에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도 잘 한다. 요즘은 아버지가 일이 없어 엄마가 매일 매일 다른 집을 돌아다니면서 빨래를 해주어 겨우 학생 교복을 구입했다고 한다.



이름: Kevin Jay Lopez
나이: 17살, 대학교 1학년
희망: 경찰

Kevin은 엄마 아빠,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인 형이 있다. 형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할머니가 계신 지방에서 해양대학에 다니고 있다. 엄마 아빠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하루 400페소(한국 돈 10,000원) 정도 받으면 약 값으로 절반 이상이 나간다. 그래도 이번 방학에는 공사판에서 하루 일당 200페소 씩 벌여 대학교 등록금 중 일부를 지불할 수 있었다. 경찰이 되어 나라에, 가정에 충성을 다하고 싶으면서 부모님들이 탐탐치 않게 생각하였지만 이번에 경찰을 교육시키는 대학에 입학하였다.

부모님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고, 친구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은 학생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열성이 높지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한다. 아버지는 토요일까지 막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친척의 트라이씨클(필리핀의 교통 수단 중 하나)을 빌려 운전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



이름: Rebeca Duran
나이: 14살, 초등학교 3학년
희망: 선생님

Rebeca는 1남 3녀 중 첫째이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엄마 혼자 쓰레기 산에 올라가 쓰레기를 모아 팔은 돈으로(하루 50페소, 한국 돈으로 1,500원) 그야말로 생계만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고등학생 되었어야 할 Rebeca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학교를 갈 수가 없었다. 그동안 엄마는 몸을 가리기도 힘든 상태일지라도 열심히 산에 올라가 쓰레기를 모아 팔은 돈으로 올해 Rebeca를 3학년으로 재입학시켰다. 하지만 학교 교복을 사줄 형편도 안 된다고 한다. Rebeca는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동생들도 아주 잘 돌보며, 엄마가 산에 올라갔을 때는 엄마를 대신해서 빨래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한다. 올해 학교를 다시 들어가게 되어 Rebeca는 너무 기쁘다.



이름: Buenasito Magnifice
나이: 13살, 고등학교 1학년
희망: 선장

Buen은 올해 고등학생이 된다. 엄마 아빠가 없는 Buen은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아주 개구쟁이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사는 것이 너무 막막해 Buen이 있는 앞에서 자살을 하였다. 어린 나이였지만 차갑게 되어 있는 엄마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Buen이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다. 수녀원에서 학용품 몇 가지를 준비하여 주었지만 할머니 혼자서 어떻게 이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것이 아는 지 모르는 지 Buen은 항상 기쁘기만 하다. 수녀원에서 자주 슬리퍼를 챙겨주지만 워낙 뛰어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 몇 주가 안 되어 구멍 난 슬리퍼를 수녀들에게 보여주곤 한다.



이름: Jack Leonard C. Bledo
나이: 12살, 초등학교 6학년
희망: 과학자

Jack은 3남 2녀 중 첫째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는 엄마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하고 할머니가 계신 곳에서 학교를 다닌다. 그 이유는 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되기에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학비를 그곳에서 지불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자녀 중에 몇은 지방에 있는 친척들에게 보내어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Jack의 가정도 둘째 아이를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첫째는 시골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Jack은 남자이지만 엄마를 도와 빨래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아 주면서 엄마 아빠와 지내는 방향기간이 늘 기다려진다.



이름: Marianorly Dean Rondina
나이: 6살, 초등학교 1학년
희망: 선생님

Maria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다. 오빠 둘 사이에서 귀여움을 독차지 했었는데 작년에 여자 동생이 생겨 사랑이 나뉘지기는 했지만 동생을 아주 사랑한다. 아빠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일이 있으면 공사장에 나가 하루에 일당 200페소를 받는다. 일이 없어서 먹을 것조차 없을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함께 쓰레기 산에 올라가 쓰레기를 주어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산다. 이것이 이들의 삶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대한 교육열은 여니 부모들 못지 않다. 올해는 Maria까지 포함해서 세 명을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어깨가 몹시 무겁다. 하지만 Maria를 보면 가정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밝다. 목요일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 맨 앞 자리에 앉는 Maria는 6살이지만 기도를 선송할 정도로 아주 똑똑하다.

바이파스 아동 결연금은 일년에 200불입니다.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10월 ~ 2010년 4월까지)

일반/업소/단체/기관	
강금생	~2010년 9월
강대성 / 마리아	~2009년 12월
강명희 (에밀리아)	~2010년 12월
강윤선 (루시아)	~2009년 12월
고경애 / 고석태	~2010년 2월
곽금순	~2010년 5월
곽중무	~2010년 12월
광숙조	~2009년 12월
구귀옥 (아나타시아)	~2010년 2월
구춘희	~2010년 4월
권순 (리오바)	~2010년 4월
금화열 / 로사	~2010년 8월
김경호	~2010년 6월
김관동 / 강미	~2009년 12월
김관동/관동한의원	~2009년 12월
김남현	~2010년 12월
김남례 (모니카)	~2010년 1월
김남식 (안드레아)	~2009년 12월
김남식 / 율리아나	~2009년 12월
김동한	~2010년 12월
김두하 / 연희	~2010년 12월
김명희 (율리아나)	~2010년 12월
김문철 / 카타리나	~2010년 12월
김민철 / 진아	~2009년 12월
김박철 (안젤라)	~2009년 12월
김성현	~2010년 4월
김성화	~2010년 3월
김수연	~2010년 12월
김승현 / 현동	~2010년 3월
김영연	~2010년 4월
김영애	~2009년 12월
김영희 아네스	~2010년 5월
김우경	~2009년 12월
김원정	~2010년 4월
김윤상	~2009년 12월
김은자 루시아	~2010년 5월
김인순	~2010년 12월
김재인 (안나)	~2010년 12월
김정옥 / 숙희	~2009년 12월
김정자 Spencer	~2010년 6월
김정희 (안젤라)	~2010년 12월
김정희 / 준수	~2010년 12월
김중빈	~2010년 5월
김진석 / 소피아	~2009년 12월
김찬문	~2009년 12월
김춘실	~2009년 12월
김호찬	~2010년 4월

김홍자 (아네스)	~2010년 3월
김화동	~2009년 12월
류악희	~2009년 12월
민금순 마리아	~2010년 12월
민들레회	~2010년 6월
민일성 / 멜라니아	~2010년 4월
박민규	~2010년 5월
박봉임	~2010년 12월
박삼열	~2009년 12월
박영수/Tri State Contractors	~2010년 6월
박원균 골롬바	~2009년 12월
박종J	~2010년 4월
박찬호	~2010년 12월
서영숙	~2010년 12월
서정길	~2010년 6월
소근화 (도미나)	~2010년 12월
소병각	~2010년 12월
손양조	~2010년 4월
송상훈 / 마리아	~2010년 12월
안나희	~2009년 12월
안병화	~2009년 12월
안순상	~2009년 12월
안혁빈 / 데레사	~2010년 6월
양방우 / 정자	~2009년 12월
어로도테아	~2009년 12월
어인경	~2009년 12월
염윤기	~2010년 4월
오성웅	~2010년 3월
오진환 (로마노)	~2009년 12월
우기업 / 데레사	~2009년 12월
원승철	~2010년 3월
유정식	~2009년 12월
은임순	~2010년 4월
이갑현	~2010년 4월
이강영 (데오도로)	~2010년 6월
이광호 / 경옥 / 미라	~2009년 12월
이기녕	~2009년 9월
이만수	~2010년 3월
이상일	~2009년 12월
이세혁 / 세실리아	~2009년 12월
이수연	~2010년 6월
이순남	~2010년 4월
이순용 (안젤라)	~2010년 5월
이순주	~2010년 2월
이승구 / 분다	~2010년 3월
이신규	~2009년 12월
이말비나	~2009년 12월
이용운	~2010년 2월

이우진 / 김숙희 / 이명	~2010년 4월
이유정 / 이혁주	~2009년 12월
이은배	~2010년 4월
이정일	~2009년 12월
이천우 / 헬레나	~2010년 12월
이태선	~2010년 12월
이태영	~2010년 2월
이태욱 / 리타	~2010년 4월
임계빈 / 데레사	~2009년 12월
장경옥 / 윤성	~2010년 12월
장석진	특별후원
전미경	특별후원
전수일 / 글라라	~2009년 12월
전태진 / 전기복	~2010년 8월
정창조 / 루시아	~2009년 10월
조남식	~2010년 8월
조명규 / 데레사	~2010년 10월
조명규 / 조미란	~2010년 10월
조명규 / 조미화	~2010년 10월
조명규 / 조정현	~2010년 10월
조민주 / 조옥희	~2010년 4월
조봉순 (아기다)	~2010년 12월
주삼성 / 레지나	~2009년 12월
채정연	~2009년 12월
최마리아	~2009년 12월
최문희 (카타리나)	~2010년 8월
최순희	~2010년 4월
최종걸	~2010년 3월
하명희 (말가리따)	~2010년 4월
하상희	~2009년 12월
한마리아	~2010년 12월
한정현	~2010년 5월
한중희 / 영희	~2010년 12월
허영숙	~2009년 12월
홍성철 / 세실리아	~2010년 6월
홍일벗	~2010년 4월
홍진원 / 김은숙	~2009년 12월
황원균 / 황영문	~2009년 12월
황정자 (데레사)	~2010년 12월
Garvey, Cheryl K	~2010년 4월
Pierce, Young-Mi	~2010년 1월
아동결연 / 시설후원	
대건의 집	
박영희 데레사	~2010년 4월
루치아 쉼터	
권영수 / 권점숙	~2009년 12월
박찬영	~2010년 4월
송승혜	~2010년 4월

오승은	~2010년 4월
이데레사	~2010년 2월
이명구 / 수산나	~2010년 4월
이윤아 잼마	~2010년 4월
목포 작은 꽃들의 집	
김도현 (2 아동 결연)	~2009년 12월
김영식/김소영	특별후원
바오로회	~2010년 4월
목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소근화 토마스	특별후원
익명 C	특별후원
베론성지	
박봉임	~2010년 12월
북평성당	
김광호	~2010년 2월
김병윤	~2010년 5월
윤경자	~2009년 12월
북한돕기	
한귀병	~2010년 3월
Yuh, Teresa	특별후원
Park, Paul M	특별후원
살레시오의 집	
소재웅 / 소난희	~2010년 4월
삼척 종합사회복지관	
김명숙	~2010년 12월
김진아	~2009년 12월
백승연	~2010년 3월
성승옥	~2010년 4월
성찬용	~2010년 4월
소재웅 / 소난희	~2010년 4월
안크리스토퍼	~2010년 6월
이명자	~2010년 5월
이연철 / 박희임	~2010년 4월
편성대	~2010년 4월
한귀병 (토마스)	~2010년 3월
익명 H	~2010년 4월
서울장학결연	
김주리	~2010년 4월
최병렬 / 최경희	~2010년 4월
영월 다문화지원센터	
김병윤	~2010년 5월
유자경	~2010년 6월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강명희 (에밀리아)	~2010년 5월
김병윤	~2010년 5월
김영지	~2010년 12월
김용상	~2010년 6월
김인석	~2010년 4월

김지은	~2010년 5월
매죽회 (2명 아동후원)	~2010년 3월
바오로회	~2010년 4월
박영수 (2명 아동후원)	~2010년 6월
서윤배 / 데레사	~2010년 6월
이도훈	~2011년 1월
이봉기	~2010년 4월
이세린	~2009년 12월
장경옥 / 윤성	~2010년 12월
정우석	~2009년 12월
정일희	~2010년 8월
차명자	~2010년 4월
한중희 / 영희	~2010년 4월
황덕수	~2010년 2월
황원균 / 황영문	~2009년 12월
원주 비안네성소	
강명희	~2010년 12월
구귀옥	~2010년 2월
금화열	~2010년 8월
김남례 모니카	~2010년 1월
김두하	~2010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10년 12월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김두하/연희	특별후원
김마리아 팀	특별후원
김효중 아네스	~2010년 3월
박용걸/원다	~2010년 12월
서세실리아	~2010년 1월
안희숙	~2010년 5월
유영희	특별후원
이신규	~2010년 12월
최창식/메리엔	~2010년 3월
한중희/안젤라	~2010년 4월
제천 노인복지관	
소재웅 / 소난희	~2010년 4월
익명 C	~2010년 6월
횡성 종합사회복지관	
고현주 (2명 아동후원)	~2010년 12월
김계실	~2010년 2월
김미정	~2010년 6월
김영식 / 김소영	~2010년 6월
노명아	~2010년 4월
익명 P	~2010년 12월
유지광/유보나 (2명 아동후원)	~2010년 5월
윤경자	~2009년 12월
이용선 (3명 아동후원)	~2010년 12월
정규임	~2010년 4월
최일지	~2010년 4월
흑빛공부방	
고경애	~2010년 2월
김순섭	~2010년 3월

늘푸른여성골프회	~2010년 12월
박완다	~2010년 12월
이진희	~2010년 5월
차창옥	~2010년 4월
최평란	~2010년 12월
네팔	
김명숙	~2010년 12월
김명철 / 소화	~2010년 12월
김안젤라	~2010년 12월
김헬리시아	~2010년 12월
변애린	~2010년 12월
안크리스투퍼	~2009년 12월
이은배	~2009년 12월
정규임	~2009년 12월
허영숙 (2 아동후원)	~2010년 12월
Lee, Andy	~2009년 12월
사랑의 선교 수사회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성심원	~2010년 8월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에콰도르	
백승태 / 마리아	~2010년 12월
유보나 팀	특별후원
파푸아 뉴기니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변레지나	~2010년 11월
안순상팀	특별후원
필리핀 빠야따스	
김두하	특별후원
김병윤	특별후원
김영희 모니카	특별후원
바오로회	특별후원
신후범	특별후원
안순상	특별후원
윤정자	특별후원
이기녕	특별후원
이상길 필립	특별후원
이주원 / 이은영	특별후원
이혁주	특별후원
장정화	특별후원
한영옥	특별후원
홍세실리아	특별후원
Song, Janet	특별후원
Han, John & Francesca	특별후원
재정기금	
김돈현	~2009년 12월
김리나	~2009년 12월
김명철	~2010년 4월
성정바오로천주교회	~2010년 12월
차명자	~2010년 4월
홍세실리아	~2010년 6월
Hi-Tech Bankcard	~2010년 5월

사랑의 모금통

Brafferton Cleaners/이갑웅	2010년 4월	Liberty Cafe/박루시아	2010년 2, 4월
Capitol Cafe/서 제임스	2010년 4월	Market Square Cleaners/최순희	2010년 2월
Chesterbrook Excel/김영술	2010년 2월	Maynine Inc/용복순	2010년 2~5월
Convenience Express/이창권	2010년 4월	Montclair Cleaners/이애니	2010년 4월
Express Seven Food/박정복	2010년 2, 4월	Monument Cafe/최지돈	2010년 5월
Fair Oaks Cafe	2010년 5월	NADA Cafe/Choi, Sandy	2010년 4월
Georgetown Valet/김남식	2010년 2월	Paddock Cleaners/한귀병	2010년 2월
Greatfalls Cleaner/박원균	2009년 10월	Uptown Market/김소피아	2010년 1월
Greensboro Corp Cafe/이호	2010년 4월	Wow Deli/임대식	2010년 4월
J & C Interior/김재설	2010년 2월	Yes!/차명학	2010년 5월
John's Cafe/김재영	2010년 2월	세라미용실/이정연	2010년 1월
Jon's Cafe/최용태	2010년 4월		

* 후원금 내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되신 분, 주소가 변경된 회원님들은 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571)432-9868

제비꽃 연가 / 이해인

헤프지 않은 나의 웃음
아껴 둔 나의 향기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가까이 오셔야
나는 겨우 고개를 들어
웃을 수 있고
감추어진 향기도
향기인 것을 압니다.

당신이 가까이 오셔야
내 작은 가슴속엔
하늘이 출렁일 수 있고
내가 앉은 이 세상은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담담한 세월을
뜨겁게 안고 사는 나는
가장 작은 꽃이지만
가장 큰 기쁨을 키워 드리는
사랑꽃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온통 봄빛으로 채우기 위해
어둠 밑으로 뿌리내린 나
비오는 날에도 노래를 멈추지 않는
작은 시인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2009년 11월 1일 ~ 2010년 4월 30일)

김영지(결연), 김영희 아네스(일반), 김은자 루시아(일반), 김인석 스테파노(결연), 김효중(결연), 민금순 마리아(일반), Paul Park(결연), 신상미(결연), 여테레사(결연), 유자경(결연), 이창범(모금통), 조남식(일반)

2009년 11월 ~ 2010년 4월분 후원금내역 : 총 \$88,618

	2009년 11월	2009년 12월	2010년 1월	2010년 2월	2010년 3월	2010년 4월	합계
총 후원금	25,284	10,992	22,023	9,900	11,830	8,589	\$88,618
원주후원회	1,369	1,177	2,098	1,680	1,200	1,814	\$9,338
성동장애인복지관	100	100	100	100	100	100	\$600
대건의 집	100		100		100		\$300
루치아쉼터			150	150	480	220	\$1,000
베론성지				120			\$120
북평성당	110	50	110	160	120	60	\$610
북한	200		400	400	100	350	\$1,450
살레시오의 집	180	60	60	60		120	\$480
삼척종합사회복지관	1,025	425	360	750	590	585	\$3,735
서울장학결연	350	150	150	150	150	150	\$1,100
영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0	60		240	120	240	\$720
원주복지관	1,950	560	1,240	1,020	2,420	870	\$8,060
원주비안네성소후원	120	30	95	240	20	20	\$525
정선프란치스코의 집		200	690	2820	280	140	\$4,130
제천시 노인복지관	240	120	180	120		180	\$840
횡성종합사회복지관	600	960	1,260	990	2,670	480	\$6,960
흑빛공부방	560	680	1,160	120	2,380	560	\$5,460
목포 다문화가족 공부방	480	500					\$980
목포 작은 꽃들의 집	280	500		120	500	120	\$1,520
성탄 산타 되어주기	17,560	1,220					\$18,780
성가정 작은자매수녀원		2,000					\$2,000
탈북동포돕기			10,000				\$10,000
해외후원금							
브라질		2,000					\$2,000
네팔			200	400	600	200	\$1,400
사랑의선교수사회			1,260			1,180	\$2,440
성심원			1,320			1,200	\$2,520
에쿠아도르				160			\$160
파푸아 뉴기니		200	1,090				\$1,290
필리핀 뼈아프스				100			\$100

용서를 위한 기도 / 이해인 수녀

그 누구도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의 당신을 바라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이를 용서하신 주님 ~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 ~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엔
죄가 많은 자신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진정 용서하는 일은 왜 이리 힘든지요.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하루 해 지기 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잔잔한 마음에 거센 풍랑이 일고
때로는 감당 못할 부끄러움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을 넓혀 가는 삶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

너무 엄청나서 차라리 피하고 싶던
당신의 그 사랑을 조금씩 닮고자
저도 이제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렵니다.
피 흘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이를 끌어안은 당신과 함께
끝까지 용서함으로써만 가능한
희망의 길을 끝까지 가렵니다.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저를 재촉하시며
가시에 찔리시는 주님 ~
용서하고 용서받는 평화를
이웃과 나누라고 오늘도 저를 재촉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정기회원	매달 12불이상이면 되실 수 있습니다. 그중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특별후원	후원금액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금액을 언제든지 후원하시면 됩니다.
고국 아동결연	매달 60불씩 후원을 하시게 됩니다. 50불은 결연아동에게 직접 전달되며 10불은 결연아동 관할 복지관 복지 서비스를 후원합니다.
해외아동복지 급식지원	1년에 \$200로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및 급식지원을 하게 됩니다.

회비납부 방법:

- 매 주 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는 Caritas Wonju 로 써 주시면 됩니다.
- 회비는 매달 혹은 3개월, 6개월, 1년치 회비를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연락처 : 571-432-9868/703-968-3010
이메일 : caritasus@gmail.com

재단 이사장: 곽호인 베드로 신부

후원회장: 유홍열

고문 변호사: 이인탁

고문 공인회계사: 노상문

재정이사: 강민식, 김글라시아, 김명철
조영혜, 차명자
김리나, 윤경자, 홍세실리아
김돈현

운영이사: 유자경, 차명자, 고재오
윤경자, 김글라시아, 노상문
한린다, 이 데레사

포스터 디자인: 백경화

홈페이지 관리: 하보이

사진촬영: 지수성

웹사이트: www.caritaswonjuva.com

본 회지는 매 6개월에 한번씩 발행됩니다.

발간인 : 곽호인 베드로 신부

편집인 : 유자경, 이소영, 홍알벗, 신선애

원고 교정 : 정영희

편집 Layout : 백경화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구 분	정기회원(), 특별후원()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월	\$12() \$20() \$30() \$40() \$50() 기타() 특별후원()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고국아동/공부방 결연 후원 신청서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결연 \$60/월 ()			후원아동/ 공부방이름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급식지원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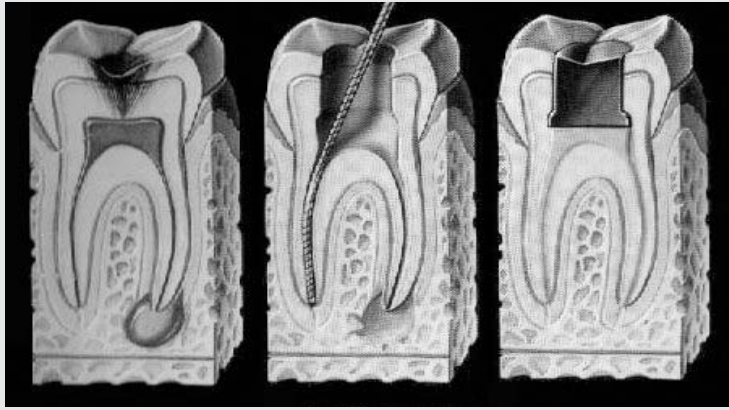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1년에 \$200				

ENDODONTICS-ROOT CANAL SPECIALIST

신경치료 전문의

Charlie H. Hong, DMD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703-359-4447

3554 Chain Bridge Rd., #401
Fairfax, VA 22030

차명자 치과

Myong J. Cha, D.D.S.



모든 일반치과 진료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915 Old Lee Highway Suite 22-D
Fairfax, VA 22030

(703) 273-5033

윤경자 치과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703-538-2283

6081 Arlington Blvd., Falls Church, VA 22044



웨어팩스 가정의학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환자 한분 한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의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Michael D. Kim, MD

김돈현 가정의학 전문의

William & Mary 대학졸업
Medical College of Virginia 의과대학 졸업
미국 가정의학 전문의 (Diplomate,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
전 Harrisburg Hospital Family Practice Residency Program의 Clinical Faculty역임
현재 INOVA Fairfax & Fair Oaks Hospital Staff Physician
현재 AMA, AAFP 멤버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학교신체검사

예방접종

종합검진

보험 : 메디케어 및 각종 보험 취급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Tel. (703)591-4100 / Fax.(703)591-5380

10801 Main St., Suite 700, Fairfax, VA 22030 (새주소)



치 주 치 과 전 문 의

Perio Implant Center 강원근
인공치아 / 잇몸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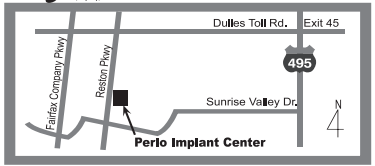
Q 치주(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이란
일반치과 의사들이 강원근 치주치과 전문의에게 리퍼(소개)하는 이유는?

A “각종 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을 가장 성심껏
전문의의 기술로 치료해 드립니다.”

학력
Turfs 시대 졸업
Univ. of MD 치주전문 의 졸업
U.S. NAVY 치주 전문의 연수
Board Eligible for Academy of Periodontology
미 치주학회 정회원
Implant 학회 정회원

진료과목
치주 진료
인공 치아 이식(Implant) 상담 치료
풍치 수술, 잇몸 성형수술

Refer
(리퍼) 일반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때 해당 환자를 전문의에게 소개하는 의료단체



703.648.0500
11866 Sunrise Valley Dr., #101, Reston, VA 20191

www.perioimplantcenter.com

Kim's
AUTO SERVICE



**김씨자동차
정비센터**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성껏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 신용 친절

외제차 & 국내차 대표: 김남식
Fair City Mall 근처 U.S 우체국 바로옆의 골건물
3707 Pickett Rd., Fairfax, VA 22031 **(703)425-4600**



Serving All Cemeteries • Prearrangements Available
Family Owned and Operated



Fairfax Memorial Funeral Home
9902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425-9702
Peter L. Piscitelli, General Manager

Fairfax Memorial Park
formerly Calvary Cemetery
9900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323-5202

Family Owned and Operated Since 1957



실사출력 전문업체 - 워싱턴그래픽

차량랩핑, 베너, 현수막, 레스토랑,
텔리 등의 메뉴보드, 벽화
그외 모든 디스플레이 그래픽 전문

703.750.2884

WBS 워싱턴 TV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ox 채널 30, 830과 Verizon 채널 30에서 동시 방영됩니다.

수요일 (오후 9시~11시)

9:00 - 생명의 말씀
9:30 - 건강 플러스, 파워특강 (격주)
10:00 - 오늘의 양식 (떨그림교회 손형식 목사)
10:30 - 치유찬양, 소망의콘서트, 공감 연주회

목요일 (오후 9시~11시)

9:00 - 특집타큐 (한국방송통신위원회제공)
WBS초대석 (격주)
9:45 - 방송 칼럼
10:00 - 파워특강, 방송과의 만남

(7월부터 금요일로 변경)

일요일 (오전 7시~9시)

7:00 - 생명의 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7:30 - 오늘의 양식 (서울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8:20 - CCM 찬양
8:30 - 월드미션투데이, 생명의 말씀 (형제교회 권준 목사/격주)

* 이상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워싱턴 평화방송은 금요일에서 목요일(오후 9시~11시)로 변경 방영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제 32회 2010년 7월 1일 (목)

	타이틀	소제목	강사자
9:00	시작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김종화 베드로 방송위원
9:03	차동엽 신부의 맥으로 읽는 성경	제11강 아름다운 증거	차동엽 신부
9:50	카리타스 홍보		
9:51	추기경 김수환이야기	제22회 두번째 본당생활	
10:06	김혜운 수녀의 성경여행 스케치	제21회 역사비평적 방법론	
10:55	밤의 명상		곽호인 신부
10:59	방송 도움주신 분들		

제 33회 2010년 7월 8일 (목)

	타이틀	소제목	강사자
9:00	시작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김종화 베드로 방송위원
9:03	차동엽신부의 맥으로 읽는 성경	제12강 사울의 회심	차동엽 신부
9:50	추기경 김수환이야기	제23회 제자들과 나는 사랑	
10:05	카리타스 홍보		
10:08	김혜운수녀의 성경여행 스케치	제22회성경해석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김혜운 수녀
10:55	밤의 명상		곽호인 신부
10:59	방송 도움주신 분들		

제 34회 2010년 7월 15일 (목)

	타이틀	소제목	강사자
9:00	시작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김종화 베드로 방송위원
9:03	활력충전! 오늘도 건강하게	제23회 안구건조증 & 심장 강화 운동	문정일교수 원정혜 박사
9:12	안나수녀님께 물어보세요	미사때의 동작	남안나 수녀 김준경
9:18	차동엽 신부의 맥으로 읽는 성경	제13강 복음을 싣고 바오로의 전도여행	차동엽 신부
10:06	카리타스 홍보		
10:07	김혜운 수녀의 성경여행 스케치	제23회 모세오경 개요	김혜운수녀
10:55	밤의 명상		곽호인 신부
10:59	방송 도움주신 분들		

제 35회 2010년 7월 22일 (목)

	타이틀	소제목	강사자
9:00	시작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김종화 베드로 방송위원
9:03	활력충전! 오늘도 건강하게	제8회 치질 & 신장, 하복부	한채규 외과전문의 원정혜 박사
9:11	차동엽 신부의 맥으로 읽는 성경	제14강 사목자 바오로	차동엽신부
9:57	함께보는 교회미술	제160회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	박혜원 소피아
10:10	카리타스 홍보		
10:11	김혜운 수녀의 성경여행 스케치	제24회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	김혜운수녀
10:55	밤의 명상		곽호인 신부
10:59	방송 도움주신 분들		

제 36회 2010년 7월 29일 (목)

	타이틀	소제목	강사자
9:00	시작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김종화 베드로 방송위원
9:03	활력충전! 오늘도 건강하게	제 9회 갑상선암 & 호흡기 운동	한채규 외과전문의
9:06	차동엽 신부의 맥으로 읽는 성경	제15강 새 백성	차동엽 신부
9:52	추기경 김수환이야기	제24회 독일 유학길에 오른다	
10:07	김혜운 수녀의 성경여행 스케치	제25회 역사서 개요	김혜운 수녀
10:54	카리타스 홍보		
10:55	밤의 명상		곽호인 신부
10:59	방송 도움주신 분들		

